KKUMBAON DIGITAL LIBRARY · HALL 5 WESLEYAN ARCHIVE

존 웨슬리 주요 설교 해설 16편 & 웨슬리 신학 자료 6편

— 꿈바온 매일말씀 6단 스타일로 읽는 구원의 서정 (총 22편) —

■ **자료의 성격 및 판본 · 출처 안내**

• **수록 구성:** 존 웨슬리의 핵심 표준설교 해설 16편 + 구원의 서정 · 4기둥 · 올더스게이트 회심 일기 · 속회 규칙 · 찬송 신학 자료 6편 (총 22편)

• **설교 번호 및 원문 기준:** Thomas Jackson 판본(*The Works of John Wesley*, 1872) 및 Edward Sugden 표준설교(Standard Sermons) 번호 기준 (원문 참고: Wesley Center Online)

• **성경 인용 및 해설:** 본서는 웨슬리 설교 원문 전체의 축자 번역본이 아니라, 각 설교의 중심 본문(개역한글 · WEB)과 핵심 논지를 꿈바온 매일말씀 6단 구조로 재구성한 강해 · 해설집입니다.

• **판본 및 개정일:** 2026년 10월 28일 제1차 검수 · 개정판

오직 성경(Sola Scriptura) · 오직 은혜(Sola Gratia) · 성결한 삶

꿈바온 디지털 도서관 (꿈디도) · 제5관 웨슬리 신학관

전체 목차 (주요 설교 해설 16편 · 웨슬리 신학 자료 6편)

번호	문헌 및 설교 해설 제목	중심 성경 본문
01	〔표준설교 제1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에베소서 2:8-9
02	〔표준설교 제2편〕 거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6:27-29
03	〔표준설교 제4편〕 성경적 기독교	사도행전 4:31
04	〔표준설교 제5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로마서 4:4-5
05	〔표준설교 제10편〕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 됨의 확신)	로마서 8:15-16
06	〔표준설교 제14편〕 신자의 회개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두 번째 회개)	마가복음 1:14-15
07	〔표준설교 제16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에서 기다리라)	말라기 3:7
08	〔표준설교 제18편〕 거듭남의 표지 (위로부터 난 사람의 세 가지 열매)	요한복음 3:8
09	〔표준설교 제19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큰 특권 (죄를 이기는 거듭난 생명)	요한일서 3:9
10	〔표준설교 제20편〕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 (전가된 의와 성결의 조화)	예레미야 23:5-6
11	〔표준설교 제39편〕 보편적 정신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그리하면 내 손을 잡으라)	열왕기하 10:15
12	〔표준설교 제40편〕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한 사랑으로 빚어지는 성화)	빌립보서 3:12-14
13	〔표준설교 제43편〕 성경적 구원의 길 (선행은총 · 칭의 · 성화의 대교향곡)	에베소서 2:8
14	〔표준설교 제45편〕 거듭남 / 새 탄생 (영적 감각이 열리는 생명의 변화)	요한복음 3:7
15	〔표준설교 제50편〕 돈의 사용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아끼고, 나누어 주라)	누가복음 16:9-11
16	〔후기 명설교 제85편〕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응답)	빌립보서 2:12-13
17	〔구원의 서정 총론〕 선행은총에서 영화까지 — 한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	디도서 2:11-14 · 에베소서 2:8-10
18	〔웨슬리 성경 해석학〕 한 권의 책의 사람과 웨슬리 신학의 네 기둥 — 성경 · 전통 · 이성 · 경험	디모데후서 3:15-17
19	〔웨슬리 성결 고전 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 풀어읽기	요한일서 4:16-18 · 마태복음 22:37-39
20	〔감리교 역사 사료〕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이상하게 뜨거워진 가슴 (1738년 5월 24일) — 엡워스의 불길에서 세계 교구 선언까지	로마서 8:1-2 · 스가랴 3:2
21	〔웨슬리 공동체 영성〕 속회와 일반규칙 — 경건의 실천과 자비의 실천이 만나는 작은 식탁	히브리서 10:24-25 · 야고보서 5:16

번호	문헌 및 설교 해설 제목	중심 성경 본문
22	〔찰스 웨슬리 찬송 신학〕 노래하는 교리 — 「만 입이 내게 있으면」과 「어찌 그럴 수 있나」에 담긴 구속의 감격	골로새서 3:16 · 시편 40:3

〔표준설교 제1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Salvation by Faith)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에베소서 2:8-9〕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38. 06. 11 ·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

〔표준설교 제1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Salvation by Faith) · 에베소서 2:8-9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38. 06. 11 ·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 교회 (St. Mary the Virgin))

1738년 5월 24일 밤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존 웨슬리가, 불과 열여덟 날 뒤인 6월 11일 모교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교회 강단에서서 선포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첫 번째 선언문입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카리스)로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산 믿음(피스티스)을 통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은혜의 원천	에베소서 2:8 상반절	구원의 유일한 시작점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카리스)
제2마디 · 구원하는 믿음	에베소서 2:8 중반절	귀신들의 지적 동의를 넘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드는 신뢰(피스티스)
제3마디 · 현재적 구원과 겸손	에베소서 2:8 하반절 – 9절	죄책(칭의)과 죄의 지배(성화)에서 건지시는 현재의 구원과 인간 자랑의 종식

2. 나란히 읽는 말씀 (에베소서 2:8-9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 9 not of works, that no one would boast.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성경 한 바퀴의 눈으로 읽는 웨슬리 표준설교,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표준설교 제1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입니다. 때는 1738년 6월 11일 아침, 장소는 영국 지성의 심장부인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교회입니다. 바로 열여덟 날 전인 5월 24일 밤,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작은 모임방에서 한 사람이 읽는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서른다섯 살의 청년 사제 존 웨슬리가 강단 위에 섭니다. 평생을 선행과 금식과 규칙으로 구원을 얻으려 몸부림쳤으나 늘 종의 두려움에 매여 있던 그가, 이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대학의 학자들과 학생들 앞에 처음으로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건넨 말씀은 단 두 절이지만, 기독교 복음의 대들보가 이 두 절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웨슬리는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우리의 땀방울입니까, 우리의 도덕적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선함이란 실상 하나님께서 먼저 불어넣어 주신 선행은총의 선물일 뿐, 우리의 행위는 과거의 죄책 하나도 스스로 지워 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곧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웨슬리는 성경 본문의 결을 따라 믿음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선명하게 가려냅니다. 첫째로, 그것은 이방 철학자의 믿음과 다릅니다. 단순히 신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도 다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믿으며 심지어 떨기까지 합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머리의 동의를 넘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전인격적 신뢰입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지금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로 온전히 붙드는 의탁입니다.

나아가 웨슬리는 이 구원이 죽은 뒤에야 가 보아야 아는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완료형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현재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칭의이며, 동시에 종의 두려움과 죄의 지배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숨 쉬는 거듭남과 성화의 출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받는 이 선물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한 입이 다물어지고 오직 어린양을 향한 찬송만이 남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카리스 (χάριςG5485)

8절 '그 은혜를 인하여(τῇ γὰρ χάριτί)'.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웨슬리는 이 은혜를 잠든 영혼을 먼저 깨우시는 '선행은총',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총', 거룩하게 빚으시는 '성화의 은총'이라는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강물로 읽어 냅니다.

4-2. 피스티스 (πίστις · G4102)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διὰ πίστεως)'.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손이자 통로(전치사 디아)입니다. 웨슬리는 이를 단순한 교리적 동의(Assent)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내 것으로 의지하는 인격적 신뢰(Trust)로 정의합니다.

4-3. 세소즈메노이 (σεσῳσμένοι · G4982, 완료 수동태 분사)

8절 '구원을 얻었나니(ἐστε σεσῳσμένοι)'.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현재의 삶 속에 생생한 효력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지키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8절의 '그 은혜를 인하여(원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수단)', 그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선물의 주권)'가 한 문장 안에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조용히 머물러 살펴봅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어깨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지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모든 복의 유일한 샘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8절 상)

인간이 행하는 가장 고상한 선행조차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단 하나의 죄도 속량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 **핵심 메시지:** 구원의 첫걸음은 인간의 도덕적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카리스)에서 시작됩니다.

STEP 02. 머리의 동의를 넘어 가슴으로 의탁하는 구원의 믿음 (8절 중)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의 눈이 열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의의 누더기를 벗어 던진 채 그분의 십자가 공로에만 전적으로 기대는 마음의 신뢰입니다.

> **핵심 메시지:** 구원하는 믿음은 교리에 대한 차가운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붙드는 뜨거운 신뢰입니다.

STEP 03. 지금 여기서 누리는 구원과 모든 자랑의 종식 (8절 하 – 9절)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미래의 천국 티켓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죄의 형벌(죄책)과 두려움, 그리고 습관적인 죄의 종살이로부터 풀려나는 현재적 해방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구원받은 성도 앞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겸손한 감사와 사랑의 순종만이 자라납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구원은 현재의 삶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 내며, 인간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1편 에베소서 2:8-9(은혜와 믿음의 대헌장) → 표준설교 제2편 사도행전 26:28(거의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 → 표준설교 제5편 로마서 4:5(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 표준설교 제43편(성경적 구원의 길)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신앙은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 동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모든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온전히 내려놓는 신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2)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자격이 있다'는 은밀한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거저 주신 선물(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선행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던 어리석은 교만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을 넘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으로 굳게 신뢰하는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책과 죄의 사슬에서 건지시는 현재의 구원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 찬양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2편〕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사도행전 26:27-29〕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1. 07. 25 ·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

〔표준설교 제2편〕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 사도행전 26:27-29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1. 07. 25 ·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 교회)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올더스게이트 회심 이전 옥스퍼드 홀리클럽 시절과 조지아 선교사 시절 동안 누구보다 엄격하게 금식하고 구제했으나 실상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음을 고백하며, 형식적 종교성에 안주하던 당대 지성인들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외적인 정직과 경건의 모양과 선행의 열심만으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 뿐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거의 그리스도인의 초상	사도행전 26:28	이교도적 도덕성, 외적 경건의 모양, 그리고 성실한 구제와 노력
제2마디 ·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심장	사도행전 26:29 상반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제3마디 · 사슬을 든 사도의 초청	사도행전 26:29 하반절	'적으나 많으나'가 아니라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건너오라는 부르심

2. 나란히 읽는 말씀 (사도행전 26:27-29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27 아그립바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줄 아나이다
-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 29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 한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27 King Agrippa, do you believe the prophets? I know that you believe.
- 28 Agrippa said to Paul, 'With a little persuasion are you trying to make me a Christian?'
- 29 Paul said, 'I pray to God, that whether with little or with much, not only you, but also all that hear me today, might become such as I am, except for these bonds.'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은 가이사랴 총독 관저의 화려한 법정에서 쇠사슬에 묶인 바울과 보랏빛 왕복을 입은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마주 선 장면,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한 표준설교 제2편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묻자, 아그립바 왕은 미묘한 미소와 함께 한마디를 던집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거의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라고 옮긴 이 유명한 구절 앞에서, 존 웨슬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거울 앞에 세웁니다.

웨슬리는 묻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세상에서 손가락질받는 악인이 아닙니다. 첫째로 그는 이교도 철학자들조차 강조했던 정직과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는 경건의 외적인 모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자리를 지키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셋째로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보며 경건한 모임에 열심을 내는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웨슬리는 담담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오랫동안, 내 재산과 힘과 몸을 다 바쳐 아메리카 원주민을 구원하러 바다를 건너갔을 때조차도, 실상은 거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기에 그토록 치열했던 경건이 '거의'에 머물렀던 것입니까? 웨슬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세 가지 생명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내 영혼의 지극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편과 내 친구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원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품는 긍휼입니다. 셋째는 이 모든 사랑의 뿌리가 되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고, 사랑으로써 역사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울은 왕관을 쓴 아그립바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외칩니다.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거의 도착한 항구 앞바다에서 난파하는 배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의'라는 문턱에 멈추어 서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그분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손짓합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엔 올리고 (ἐν ὀλ ί γ ῳ · G1722 + G3641)

28절 '적은 말로 / 거의(With a little / Almost)'. 헬라어 원문은 '적은 시간 안에' 또는 '적은 설득으로'라는 뜻과 함께 킹제임스 성경 전통에서 '거의(Almost)'라는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열쇠 말로 쓰였습니다. 복음의 문턱 바로 앞까지 왔으나 마지막 한 걸음인 인격적 항복을 유보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4-2. 크리스티아노스 (Χ ρ ι σ τ ι α ν ό ς · G5546)

28절 '그리스도인(Christian)'. 신약성경 전체에서 단 세 번(행 11:26, 26:28, 벧전 4:16)만 등장하는 호칭으로, 단순히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 그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뜻합니다.

4-3. 카이 엔 올리고 카이 엔 메갈로 (κ α ὶ ἐν ὀλ ί γ ῳ κ α ὶ ἐν μ ε γ ά λ ῳ · G3641 / G3173)

29절 '말이 적으나 많으나(whether with little or with much)'. 아그립바의 '엔 올리고(거의/적은 것)'를 바울이 받아치며, '적게든 크게든,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Altogether)'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구하는 사도의 뜨거운 탄원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28절 아그립바 왕의 비켜 가는 대답('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과 29절 바울 사도의 정면 고백('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사이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누가 진짜 묶인 사람이고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지 두 인물의 자리를 대조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정직과 종교적 열심의 문턱, '거의 그리스도인' (27 – 28절)

세상의 도덕적 정직함을 지키고, 교회의 예전과 경건의 모양을 빠짐없이 수행하며, 구제와 봉사에 진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행하는 종교 생활은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 **핵심 메시지:** 도덕적 성실함과 외적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영혼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STEP 02.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인' (29절 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는 살아 있는 믿음이 뛰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옵니다.

> **핵심 메시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빚어내는 핵심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입니다.

STEP 03. 문턱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결단 (29절 하)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은 성전 문턱 바로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의를 내려놓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온전히 뛰어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핵심 메시지:** 복음은 우리를 '거의'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자유를 누리는 '온전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 한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29)"**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2편(거의 그리스도인) → 표준설교 제4편 사도행전 4:31(성경적 기독교 —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 표준설교 제18편 요한복음 3:8(거듭남의 표지 — 믿음 · 소망 · 사랑)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내가 오랫동안 지켜 온 예배와 봉사와 경건의 습관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쁨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버티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피로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2) 오늘 내가 '거의'라는 안전지대를 넘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마음의 한 방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살아 계신 주님,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건의 모양과 도덕적 체면 뒤에 숨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려 했던 저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그립바처럼 말씀의 문턱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을 부어 주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4편〕 성경적 기독교 (Scriptural Christianity)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사도행전 4:31〕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4. 08. 24 ·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

〔표준설교 제4편〕 성경적 기독교 (Scriptural Christianity) · 사도행전 4:31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4. 08. 24 ·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대학 교회 (마지막 대학 설교))

1744년 8월 24일 성 바돌로매 축일,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성 마리아 교회에서 행한 역사적인 마지막 대학 설교입니다. 설교 말미에 그는 학장들과 교수들과 학생들을 향해 '여기에 성경적 기독교가 있습니까?'라고 정직하게 물었고, 설교 직후 부총장이 설교 원고 제출을 요구하며 이후 옥스퍼드 강단은 그에게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강단 너머로 온 세계를 교구로 삼는 부흥의 들판이 열렸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는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표나 방언 · 치유 같은 비상한 은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맺히는 사랑 · 희락 · 화평의 거룩한 성품과 세상을 치유하는 자비의 삶에 있습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한 사람 안에 임하는 기독교	사도행전 4:31 상반절	기적적 은사(비상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일상적 은혜)로 깨어나는 개인
제2마디 · 온 땅으로 번져 가는 기독교	사도행전 4:31 중반절	한 영혼에서 가정과 공동체로, 마침내 전쟁과 불의가 그치는 온 세상으로
제3마디 · 오늘 우리 강단 앞의 질문	사도행전 4:31 하반절	'기독교 대학, 기독교 공동체라 불리는 이곳에 과연 성경적 기독교가 살아 있는가?'

2. 나란히 읽는 말씀 (사도행전 4:31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31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as shaken where they were gathered together.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y spo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 32 The multitude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Not one of them said that any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d was his own, but they had all things in common.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1744년 8월 24일 아침, 옥스퍼드 대학교의 총장과 학장들과 교수들이 붉은 학위 가운을 입고 성 마리아 대학 교회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존 웨슬리가 모교의 강단에 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가 펼친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였습니다. 웨슬리는 이 한 절을 들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분하면서도 불꽃 같은 언어로 펼쳐 보입니다.

먼저 웨슬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바로잡습니다.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방언이나 신유나 이적 같은 '비상한 은사들(Extraordinary Gifts)'은 초기 복음 전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신 표적이었을 뿐,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심장은 성령의 '일상적인 은혜의 열매(Ordinary Fruits of the Spirit)',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신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웨슬리는 이 성경적 기독교가 한 사람의 가슴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이웃과 사회로 번져 나가는지를 그립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난한 형제의 굶주림을 내 아픔으로 여깁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고, 오직 경건의 실천과 자비의 실천이 두 날개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복음이 온 땅을 덮을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웨슬리는 숨이 멎을 듯한 침묵 속에서 청중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때의 그 성경적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기독교 학문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 대학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수들과 학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와 영혼을 살리는 불꽃이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옥스퍼드의 강단은 닫혔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웨슬리의 외침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앞에도 똑같이 서 있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에플레스데산 투 하기우 프뉴마토스 (ἐπλήσθησα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 G4130 + G0040 + G4151)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동사 플레쏘(채우다)의 부정과거 수동태로, 인간의 감정적 고양이나 자기최면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의 그릇이 온전히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4-2. 파레시아 (παρρησία · G3954)

31절 '담대히(with boldness)'. 본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자유와 확신'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영적 자유입니다.

4-3. 카르디아 카이 프쉬케 미아 (καρδία καὶ ψυχὴ μία · G2588 + G5590 + G1520)

32절 '한 마음과 한 뜻(one heart and soul)'.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주의적 신비주의로 흐르지 않고, 형제자매의 아픔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 맺음을 보여 주는 핵심 어구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31절의 '다 성령이 충만하여'와 바로 이어지는 32절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결핍한 사람이 없더라'를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이 왜 언제나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자비의 식탁으로 이어졌는지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한 영혼 속에 새벽처럼 밝아 오는 성경적 기독교 (31절 상)

성경적 기독교는 국가나 제도의 이름에서 시작되지 않고, 한 개인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시작됩니다. 신기한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 **핵심 메시지:**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는 비상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거룩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STEP 02. 개인의 골방에서 세상의 광장으로 번져 가는 사랑 (31절 중 – 32절)

한 사람의 가슴에서 타오른 성령의 불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으로 번져 갑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가난한 이의 빈손을 채우며, 불의와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화평을 심는 살아 있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골방의 경건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한 마음의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STEP 03. 이름뿐인 종교 앞에서 던지는 정직한 자기 성찰 (31절 하)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는 호칭과 전통에 안주할 때 영적 잠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담대함이 살아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성경적 기독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현재의 생명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31)"**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4편(성경적 기독교) → 표준설교 제10편 로마서 8:16(성령의 증거) → 표준설교 제16편 말라기 3:7(은혜의 수단) → 속회와 공동체 영성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성령 충만을 특별한 감정이나 신기한 체험으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일상의 말투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2) 웨슬리가 오늘 나의 서재와 삶의 자리를 찾아와 '여기에 성경적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6-D 마무리 기도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름과 형식만 남은 무늬뿐인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저희의 마른 가슴에도 충만히 임하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살아 있는 성경적 기독교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5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로마서 4:4-5〕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6 출간 · 『수개의 설교집 (Sermons

〔표준설교 제5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 로마서 4:4-5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6 출간 · 『수개의 설교집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제1권)

존 웨슬리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의 관계를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교리 설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것'이라는 율법주의적 오해에 빠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며, 웨슬리는 로마서 4장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파격적인 복음의 역설을 해설합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칭의(의롭다 하심)는 우리 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법정적 사면 곧 '죄 사함'이며, 내가 스스로 경건해진 뒤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칭의의 본질과 성화와의 구분	로마서 4:4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for us) 행하시는 칭의(죄 사함)와 우리 안에서(in us) 행하시는 성화
제2마디 · 칭의의 대상: 경건치 아니한 자	로마서 4:5 상반절	먼저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 병든 죄인 그대로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제3마디 · 칭의의 유일한 조건: 믿음	로마서 4:5 하반절	삯을 요구하는 일꾼의 계산서를 찢고 은혜의 손을 붙드는 믿음

2. 나란히 읽는 말씀 (로마서 4:4-5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 5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4 Now to him who works, the reward is not counted as grace, but as something owed.
- 5 But to him who doesn't work, but believes i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accounted for righteousness.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은 바울 복음의 가장 날카로운 역설이 담긴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본문으로 한 표준설교 제5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입니다. 본문 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우리의 종교적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한 마디가 나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웨슬리는 이 한 구절을 열쇠 삼아 수백 년 동안 신자들의 양심을 얽어매던 혼란을 풀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평생 불안해하는 까닭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이 둘을 명쾌하게 구분합니다. 성화(거룩하게 하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in us)' 행하시는 내적 변화의 역사라면, 칭의(의롭다 하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for us)' 행하시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뜻은 바로 '죄 사함(Pardon, the forgiveness of sins)'입니다. 죄인이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먼저 거룩한 성품을 주입한 뒤에야 합격 도장을 찍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화목제물의 피를 보시고, 과거의 모든 죄책을 사면하여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칭의를 받습니까?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the ungodly)'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마음을 고치고 선행을 쌓아 경건한 사람이 된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의사가 병든 자에게 '먼저 병을 다 고치고 오면 진료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인간은 스스로의 공로로는 여전히 경건치 아니한 죄인입니다. 칭의가 임한 뒤에야 비로소 그 용서의 사랑 속에서 참된 성화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삯을 주십시오' 하는 계산서를 들고 오지 마십시오. 내 손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빈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십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디카이오운타 (δικαιοῦντα · G1344, 현재 능동태 분사)

5절 '의롭다 하시는 이(him who justifies)'. 동사 디카이오오는 도덕적으로 내면을 개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사면과 무죄 석방을 선언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웨슬리는 이를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호의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사건'으로 풀이합니다.

4-2. 톤 아세베 (τὸν ἀσεβῆ · G0765)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the ungodly)'.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 불경건한 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세베'를 찾아가 사면하시는 분입니다.

4-3. 로기제타이 (λογίζεται · G3049)

5절 '여기시나니(is accounted / reckoned)'. 회계 장부에 기입하다,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의롭다'고 기록해 주시는 은혜의 셈법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4절의 '일하는 자(삯을 빚으로 청구하는 사람)'와 5절의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은혜의 사면을 받는 사람)'를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 드린 일'의 계산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칭의는 성화의 전제이지 성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4절)

칭의는 우리 안의 성품을 먼저 거룩하게 바꾼 뒤 내려 주시는 판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를 사면하시는 '죄 사함(Pardon)'이 먼저 임할 때, 비로소 그 은혜 위에서 내적 성화가 시작됩니다.

> **핵심 메시지:**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죄 사함'이며, 성화는 그 용서 위에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새 생명'입니다.

STEP 02. 의사에게 필요한 자격은 오직 '병들었다'는 사실뿐입니다 (5절 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대상은 이미 스스로 경건해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내 안의 선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 **핵심 메시지:**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용서받아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STEP 03. 일꾼의 삯이 아니라 자녀가 받는 선물 (5절 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빚을 청구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 **핵심 메시지:** 공로의 계산서를 내려놓은 빈손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립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5)"**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5편(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 표준설교 제20편 예레미야 23:6(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 → 표준설교 제45편 요한복음 3:7(거듭남 —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내적 변화)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기도가 잘되고 선을 행한 날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연약하여 넘어진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공로 계산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2)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지친 양심에 어떤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까?

6-D 마무리 기도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내가 먼저 완벽해져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책을 사하시고 그 용서의 감격 속에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10편〕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 됨의 확신) (The Witness of the Spirit)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로마서 8:15-16〕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6 (제1부) · 1767 (제2부) · 웨슬리 구원 확신론의 핵심 설교

〔표준설교 제10편〕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 됨의 확신) (The Witness of the Spirit) · 로마서 8:15-16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6 (제1부) · 1767 (제2부) · 웨슬리 구원 확신론의 핵심 설교)

웨슬리 신학이 기독교 역사에 남긴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증거(The Witness of the Spirit)' 교리를 다룬 설교입니다. 웨슬리는 한편으로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열광주의'라고 비난하는 합리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 삶의 열매 없이 주관적 감정만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영적 교만 사이에서, 로마서 8장 16절 '더불어 증거하심(쉼마르튀레이)'을 통해 완벽한 성경적 균형을 제시했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하나님의 자녀 됨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하셨다'고 직접 들려주시는 '성령의 증거'와, 거듭난 삶에 맺히는 성결의 열매를 살피는 '우리 영(선한 양심)의 증거'가 함께 어우러질 때 흔들림 없이 세워집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두 겹의 증거	로마서 8:16 상반절	성령의 직접적 증거(내적 인상)와 우리 영의 간접적 증거(거듭난 양심의 성찰)
제2마디 ·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	로마서 8:15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몰아내고 자녀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성령
제3마디 · 참된 증거와 거짓 착각의 분별	로마서 8:16 하반절	교만한 자기 확신과 성령의 참된 증거를 가르는 시금석 — 겸손과 성령의 열매

2. 나란히 읽는 말씀 (로마서 8:15-16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15 For you didn't receive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y whom we cry, 'Abba! Father!'
- 16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말씀은 웨슬리 신학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표준설교 제10편 『성령의 증거』 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을 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종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 죄, 바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내적 확신으로 옮겨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본문 16절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만 하지 않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쉼마르튀레이)'고 기록했습니다. 즉, 증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성령의 직접적 증거(Direct Witness of the Spirit)'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직접 비추시는 내적 인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며,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직접적 증거가 먼저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증인인 '우리 영의 증거(Witness of our own Spirit)', 곧 선한 양심의 간접적 증거를 반드시 함께 세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이나 인간의 교만한 상상력이 삶의 변화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듭난 자녀의 표지들—죄를 미워하고 계명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직한 양심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직접적 증거는 구원의 기쁨을 여는 첫 빛이요, 우리 양심의 열매 증거는 그 빛이 헛된 신기루가 아님을 확증하는 든든한 인장입니다. 이 두 증인이 우리 안에서 한목소리로 합창할 때, 성도는 교만한 자기기만에도 빠지지 않고 불신앙의 어두운 의심에도 삼켜지지 않은 채 '아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쉼마르튀레이 (σ υ μ μ α ρ τ υ ρ ε ῖ · G4828)

16절 '더불어 증거하시나니(testifies with)'. 접두사 '쉰(함께)'과 '마르튀레오(증언하다)'가 결합된 동사입니다. 성령의 직접적 증언과 성도의 거듭난 양심(우리 영)의 증언이 두 증인처럼 나란히 서서 함께 확증함을 보여 줍니다.

4-2. 프뉴마 휘오데시아스 (π ν ε ῦμ α υ ἱο θ ε σ ί′ α ς · G4151 + G5206)

15절 '양자의 영(Spirit of adoption)'. 형벌을 두려워하며 억지로 복종하는 '종의 영(프뉴마 둘레이아스)'과 대조되는 말로, 죄인을 하나님의 친자녀의 지위와 친밀함 속으로 입양시키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4-3. 압바 호 파테르 (Ἀβ β ᾶ ὁ π α τ ή′ ρ · G0005 + G3962)

15절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셨던 아람어 친밀어 '아바'와 헬라어 '호 파테르'가 나란히 결합된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15절의 두 영('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 '양자의 영')과 16절의 두 증인('성령이 친히' ↔ '우리 영으로 더불어')을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내 안의 확신이 성령의 따뜻한 음성과 삶의 거룩한 열매라는 두 기둥 위에 함께 서 있는지 살펴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종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성령의 직접적 증거 (15절 – 16절 상)

인간의 추론이나 공로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 **핵심 메시지:**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부어 주시는 죄 사함과 자녀 됨의 확신입니다.

STEP 02. 열매로 확증하는 우리 영(양심)의 증거 (16절 중)

성령의 직접적 증거는 결코 홀로 남지 않고 반드시 거듭난 삶의 열매를 낳습니다. 내 양심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를 떠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영의 증거'가 뒤따라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성령의 내적 확신은 언제나 선한 양심과 거룩한 삶의 열매라는 두 번째 증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STEP 03. 열광주의적 착각과 불신앙적 의심을 넘어선 은혜의 균형 (16절 하)

삶의 회개와 열매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며,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자녀 됨의 기쁨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증거 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누려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구원의 확신은 겸손한 순종과 성령의 기쁨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에서 빛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16)"**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10편(성령의 증거) → 표준설교 제14편 마가복음 1:15(신자의 회개 — 거듭난 자녀 안에 남은 죄의 뿌리 직시) → 표준설교 제18편 요한복음 3:8(거듭남의 표지)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의 마음은 매 맞을까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녀의 마음(아바 아버지)'에 가깝습니까?

2) 내 안의 구원의 확신이 건강한 성령의 증거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나의 삶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저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종의 두려움과 어두운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맑은 빛으로 자녀 됨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의 확신에만 머무는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과 사랑의 열매로 주님의 자녀 됨을 삶 속에서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14편〕 신자의 회개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두 번째 회개) (The Repentance of Believers)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마가복음 1:14-15〕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67. 04. 24 · 런던데리 (Londonderry)

〔표준설교 제14편〕 신자의 회개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두 번째 회개) (The Repentance of Believers) · 마가복음 1:14-15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67. 04. 24 · 런던데리 (Londonderry) 집회 및 표준설교집)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서 '거듭남(중생)'과 '전적 성화(그리스도인의 완전)' 사이를 이어 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설교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외적인 죄는 이기게 되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원죄의 뿌리(Inward Sin)를 발견하고 당황할 때, 그것이 믿음을 잃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성화로 나아가는 '신자의 회개'임을 일깨워 줍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칭의 이전에 죄책을 깨닫는 첫 번째 회개가 있다면, 거듭난 뒤에도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내재하는 죄(교만 · 자기 의지 · 불신앙)'의 뿌리를 직시하고 전적 성화를 향해 복음을 다시 붙드는 '신자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거듭난 신자 안에 남은 내재하는 죄	마가복음 1:15 상반절	외적 범죄는 그쳤으나 마음 깊은 곳에 매달려 있는 교만 · 자기 의지 · 세상 사랑의 뿌리
제2마디 · 첫 번째 회개와 신자의 회개의 차이	마가복음 1:15 중반절	정죄와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정직히 인정하는 회개
제3마디 ·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 하반절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

2. 나란히 읽는 말씀 (마가복음 1:14-15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14 Now after John was taken into custody, Jesus came into Galilee,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 15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od News.'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우리가 펼치는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외침인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14편 『신자의 회개』에서 놀라운 통찰을 건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가 죄 사함(칭의)을 받기 전에도 필요하지만,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의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 사함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마치 내 안의 모든 악한 성향과 교만과 분노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짓는 죄(외적 죄)를 이기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도는 자기 마음 바닥에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외적인 범죄에 굴복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교만의 뿌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 의지(Self-will),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불신앙의 찌꺼기들, 곧 '내재하는 죄(Inward Sin)'가 남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였나 보다'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따뜻하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난 자녀가 맞기에,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의 먼지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신자의 회개'입니다. 칭의 이전의 첫 번째 회개가 지옥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아파하는 것이었다면, 거듭난 성도의 두 번째 회개는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부패한 성향과 영적 무능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탄식하는 겸손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는 두 번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내 죄책을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마음 깊은 곳의 내재하는 죄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자의 회개는 퇴보가 아니라 성화의 정상으로 오르는 은혜의 디딤돌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메타노에이테 (μετανοεῖτε · G3340, 현재 능동태 명령)

15절 '회개하고(Repent)'. 일회성 과거 동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성찰하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웨슬리는 이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정직한 자기 인식(Self-knowledge)'으로 풀이합니다.

4-2. 피스튜에테 엔 토 유앙겔리오 (πιστεύετε ἐ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 G4100 + G2098)

15절 '복음을 믿으라(believe in the Good News)'. 죄의 형벌을 사하시는 복음일 뿐 아니라, 신자의 마음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으시는(요일 1:9) 성화의 복음을 현재형으로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4-3. 카이로스 (καιρός · G2540)

15절 '때가 찼고(The time is fulfilled)'.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크로노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성결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은혜의 현재 시점을 뜻합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15절의 두 현재 명령형 동사 '회개하고(메타노에이테)'와 '복음을 믿으라(피스튜에테)'가 어떻게 불신자의 첫걸음(칭의)뿐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발걸음(성화)까지 평생 지탱하는 두 바퀴가 되는지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거듭난 뒤에도 마음 바닥에 남아 있는 '내재하는 죄'의 발견 (14절 – 15절 상)

거듭난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마음 깊은 곳에 아직 교만과 자기 의지와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는 '내재하는 죄'의 뿌리가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이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 **핵심 메시지:** 내 안의 연약함과 남은 죄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은 구원을 잃은 표시가 아니라 성령의 빛이 더 깊이 비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STEP 02. 정죄감이 아닌 사랑 안에서 드리는 '신자의 회개' (15절 중)

불신자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와 죄책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면, 신자의 회개는 이미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안의 부패함과 스스로는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솔직히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 **핵심 메시지:** 신자의 회개는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정결함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STEP 03.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복음을 믿음 (15절 하)

내 힘으로는 마음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요일 1:9)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 **핵심 메시지:** 회개가 우리의 빈손을 보게 한다면,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 빈손에 성화의 온전한 은혜를 채워 줍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5)"**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14편(신자의 회개) → 표준설교 제40편 빌립보서 3:12-14(그리스도인의 완전) → 표준설교 제43편 에베소서 2:8(성경적 구원의 길)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면서도 문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교만이나 고집이나 분노를 마주할 때, 나는 그것을 감추려 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신자의 회개'로 나아갑니까?

2) 오늘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던 애씀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뿌리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맡겨야 할 내면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었으나 내면 깊은 곳에 아직 남아 있는 교만과 자기 의지와 불신앙의 뿌리를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16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에서 기다리라) (The Means of Grace)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말라기 3:7〕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6 출간 · 런던 페터 레인(Fetter La

〔표준설교 제16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에서 기다리라) (The Means of Grace) · 말라기 3:7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6 출간 · 런던 페터 레인(Fetter Lane) 정적주의 논쟁 배경)

1739~1740년 런던 페터 레인 모임에서 필립 몰더(Philipp Molther) 등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성찬도 받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며 오직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Stillness)'고 주장하는 정적주의(Quietism)가 퍼졌습니다. 웨슬리는 이 극단적 수동성에 맞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기다리듯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을 성실히 사용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 길임을 천명했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기도와 성경 탐구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은 그 자체에 마술적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선행은총과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로 친히 정하신 통로이므로 성도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정적주의를 버리고 이 통로 안에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인가	말라기 3:7 상반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통로로 친히 제정하신 외적 표징과 규례들
제2마디 · 세 가지 핵심 통로	말라기 3:7 중반절	기도(은밀한 · 가정의 · 공적 기도), 성경 상고(읽고 · 듣고 · 묵상함), 그리고 주의 만찬(성찬)
제3마디 · 수단을 우상화하지도, 폐기하지도 말라	말라기 3:7 하반절	수단 자체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와 수단을 버리는 정적주의를 모두 넘어 그리스도만 바라봄

2. 나란히 읽는 말씀 (말라기 3:7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7 'From the days of your fathers you have turned aside from my ordinances, and have not kept them.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Yahweh of Armies. 'But you say, "How shall we return?"'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16편 『은혜의 수단』에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신약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며, 신앙생활의 가장 실제적인 뼈대를 세워 줍니다.

당시 런던의 일부 신자들 사이에는 이상한 가르침이 유행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아직 완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찬을 받는 것은 행위 구원에 빠지는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Be still) 기다려라.' 언뜻 들으면 매우 영적인 말 같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고 성경을 덮었으며 예배당을 떠나 영적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웨슬리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신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이라는 길목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정의하는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깨우침의 선행은총과 죄 사함의 칭의 은총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총을 흘려보내시는 통로로 친히 제정하신 외적 표징과 행동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세 가지 '제정된 은혜의 수단(Instituted Means of Grace)'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골방의 은밀한 기도와 가정의 기도와 회중의 공적 기도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주의 만찬, 곧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은 갈급한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웨슬리는 경고합니다. 수도관이 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듯,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찬이라는 수단 그 자체에는 아무런 마술적 힘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은 채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다'고 자랑하면 수단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도관을 끊어 버리면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수단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 수단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책장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길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후카이 (חֻקַּי · H2706, 호크의 복수 1인칭 접미형)

7절 '나의 규례를(my ordinances)'. 본래 돌에 새겨 정해 놓은 법도와 규례를 뜻합니다. 웨슬리는 이를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남을 위해 친히 제정해 두신 '은혜의 통로들'로 해석합니다.

4-2. 슈부 엘라이 (שׁוּבוּ אֵלַי · H7725)

7절 '내게로 돌아오라(Return to me)'. 이어지는 '아슈바 알레켐(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과 맞물려,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선행은총의 초청과 그 부르심에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응답하는 인간의 책임 있는 발걸음을 보여 줍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7절의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두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규례(기도 · 말씀 · 성찬)'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걸음과 이어져 있는지 머물러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정적주의의 함정을 넘어 주님이 정하신 길목에 서라 (7절 상)

'은혜로 구원받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적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앉아 부르짖었듯, 성도는 주님이 만나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의 규례들 안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경적 방법은 손을 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은혜의 길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STEP 02.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세 줄기 생수의 관: 기도 · 말씀 · 성찬 (7절 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 탐구, 그리고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될 세 가지 핵심 은혜의 수단입니다.

> **핵심 메시지:** 기도와 성경 묵상과 성찬은 주님께서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흘려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STEP 03. 수단을 자랑하지도 버리지도 말고, 수단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7절 하)

외적 규례를 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내 의로 삼으면 바리새인의 외식이 되고, 규례를 무시하면 교만한 열광주의가 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을 성실히 사용하되, 오직 그 안에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은혜의 수단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창문입니다. 창문을 닦되 창문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7)"**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16편(은혜의 수단) → 속회(Class Meeting)와 공동체 영성(경건의 실천과 자비의 실천) → 표준설교 제85편 빌립보서 2:12-13(구원을 이루라)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최근 내 삶에서 마음이 분주하거나 메마르다는 핑계로 슬그머니 멀리하고 있던 '은혜의 수단(기도 · 성경 묵상 · 예배와 성찬)'은 무엇입니까?

2)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오늘의 할당량을 채웠다'는 의무감으로 책장을 덮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과 기도의 통로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6-D 마무리 기도

은혜의 샘이 되시는 주님, 내 기분과 감정이 내킬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정하신 기도와 말씀과 성찬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적인 규례를 지켰다는 사실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에서도 건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식탁 앞에 겸손히 나아가 살아 계신 주님의 임재를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18편〕 거듭남의 표지 (위로부터 난 사람의 세 가지 열매) (The Marks of the New Birth)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요한복음 3:8〕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8. 04. 03 · 『수개의 설교집』 제2권 수록

〔표준설교 제18편〕 거듭남의 표지 (위로부터 난 사람의 세 가지 열매) (The Marks of the New Birth) · 요한복음 3:8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8. 04. 03 · 『수개의 설교집』 제2권 수록)

니고데모와의 밤 대화를 다룬 요한복음 3장 8절을 본문으로 삼아,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구절들을 대조하며 '어떻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라는 실제적인 질문에 답한 설교입니다. 웨슬리는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외적 사실만으로 이미 거듭났다고 안심하던 당대 영국 국교회 신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살아 있는 표지들을 제시했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소리와 흔적은 분명히 드러나며, 요한서신이 증언하는 거듭남의 세 가지 확실한 표지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첫 번째 표지: 죄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복음 3:8 상반절 (요일 5:1, 3:9)	습관적인 고의적 범죄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기는 살아 있는 믿음
제2마디 · 두 번째 표지: 두려움을 몰아내는 산 소망	요한복음 3:8 중반절 (벧전 1:3, 롬 8:15)	죽음의 공포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소망
제3마디 · 세 번째 표지: 하나님과 형제를 품는 사랑	요한복음 3:8 하반절 (요일 4:7, 5:3)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

---

2. 나란히 읽는 말씀 (요한복음 3:8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7 Don'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new.'
- 8 The wind blows where it wants to, and you hear its sound, but don't know where it comes from and where it is going. So is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예루살렘의 고요한 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바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볼에 스치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18편 『거듭남의 표지』에서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 영혼에 나타나는 '바람 소리', 곧 거듭남의 분명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웨슬리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직접 정리해 둔 성경의 답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표지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과 한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사람의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성령의 확신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환난 중에도 하늘의 평안을 간직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빛나는 표지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위해 자비를 베풉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줄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프뉴마 (π ν ε ῦμ α · G4151)

8절 '바람이… 성령으로'. 헬라어 '프뉴마'(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숨(호흡)', '영(성령)'이라는 세 가지 뜻을 동시에 품은 낱말입니다. 8절 앞부분에서는 자연의 '바람'으로, 뒷부분에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쓰여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결과를 낳는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비추어 줍니다.

4-2. 텐 포넨 아우투 아쿠에이스 (τ ῆ ̀ν φ ω ν ῆ ̀ν α ὐτ ο ῦ ἀκ ο ύ ε ι ς · G5456 + G0191)

8절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you hear its sound)'. 바람의 실체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소리(포네)와 결과는 분명히 지각할 수 있듯,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도 삶에 나타나는 믿음 · 소망 · 사랑의 열매로 확증됨을 뜻합니다.

4-3. 게겐네메노스 에크 투 프뉴마토스 (γ ε γ ε ν ν η μ έ ν ο ς ἐκ τ ο ῦ π ν ε ύ μ α τ ο ς · G1080, 완료 수동태 분사)

8절 '성령으로 난 사람(born of the Spirit)'. 과거에 위로부터 태어난 사건이 현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지속적인 새 생명으로 살아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8절에서 한 단어 '프뉴마'가 앞에서는 '바람'으로, 뒤에서는 '성령'으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말과 행동에서 어떤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거듭남의 첫째 표지: 죄의 지배를 끊어 내는 살아 있는 믿음 (8절 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연약함으로 흔들릴 때는 있으나, 결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다시 몸을 내어주지 않으며 날마다 양심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거듭남의 첫 번째 바람 소리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이기는 산 믿음입니다.

STEP 02. 거듭남의 둘째 표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산 소망 (8절 중)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신하기에 죽음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땅의 것들이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산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종의 두려움 대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산 소망으로 오늘을 삽니다.

STEP 03. 거듭남의 셋째 표지: 계명을 기뻐하고 형제를 품는 사랑 (8절 하)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절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곁의 형제와 이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을 베푸는 삶이 거듭난 사람의 본성입니다.

> **핵심 메시지:** 사랑은 거듭난 영혼이 내쉬는 호흡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 난 생명이 있습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8)"**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18편(거듭남의 표지) → 표준설교 제45편 요한복음 3:7(거듭남의 본질과 필연성) → 표준설교 제40편 빌립보서 3:12-14(그리스도인의 완전)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에 등록했다는 외적 기억 외에, 지금 내 삶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소리(믿음 · 소망 · 사랑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짐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6-D 마무리 기도

성령의 바람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외적인 종교의 이름표에만 기대어 스스로 안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산 믿음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산 소망과, 하나님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저희 삶 속에서 분명한 바람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19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큰 특권 (죄를 이기는 거듭난 생명)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요한일서 3:9〕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8 출간 · 『수개의 설교집』 제2권 · 칭의

〔표준설교 제19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큰 특권 (죄를 이기는 거듭난 생명)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 요한일서 3:9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8 출간 · 『수개의 설교집』 제2권 · 칭의와 중생의 명쾌한 구분)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명문장—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for us) 행하시는 상대적 변화요,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in us) 행하시는 실제적 변화다—이 바로 이 표준설교 제19편에서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가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서 영적 호흡(믿음과 기도)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풀어냅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상대적 변화(관계의 회복)'라면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실제적 변화(성품의 새로워짐)'이며, 믿음과 기도의 영적 호흡이 살아 있는 동안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큰 특권을 누립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칭의와 거듭남의 구분	요한일서 3:9 상반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는 칭의(상대적 변화)와 우리 내면을 바꾸는 거듭남(실제적 변화)
제2마디 · 죄를 짓지 않는 큰 특권	요한일서 3:9 중반절	하나님의 씨(말씀과 성령의 생명)가 그 속에 거함으로 고의적·습관적 범죄를 이김
제3마디 · 영적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요한일서 3:9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는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내쉬는 영적 호흡의 지속

2. 나란히 읽는 말씀 (요한일서 3:9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 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8 He who sins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o this end the Son of God was reveal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 9 Whoever is born of God doesn't commit sin, because his seed remains in him; and he can'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입니다.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19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큰 특권』에서 먼저 구원의 두 기둥인 '칭의'와 '거듭남(중생)'을 보석 세공사처럼 정교하게 구분해 줍니다.

웨슬리의 유명한 정의를 들어 보십시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for us) 행하시는 큰 일이요,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in us)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상대적 변화(Relative Change)'를 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새로워지는 '실제적 변화(Real Change)'가 일어납니다. 시간적으로는 같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구원의 풍성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유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거듭난 사람이었지만 큰 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웨슬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 영적 생명의 원리를 '호흡'으로 설명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들이마시고(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도와 찬양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숨을 내쉽니다. 이 영적 호흡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므로 외적인 죄가 결코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깨어 있지 못하고 믿음과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음 안에서 사랑이 식고 교만과 정욕에 동의하는 내적 타락이 일어나고, 믿음의 방패를 놓아 버린 그 틈으로 마침내 외적인 범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특권을 지키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믿음으로 들이마시고, 기도와 감사로 숨을 내쉬는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이 (ἁμαρτίαν οὐ ποιεῖ · G0266 + G4160, 현재 능동태)

9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doesn't commit / practice sin)'. 헬라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거듭난 자녀는 죄를 삶의 방식이나 습관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으며, 믿음 안에 거하는 동안 고의적 범죄를 이기는 승리를 누립니다.

4-2. 스페르마 아우투 (σπέρμα αὐτοῦ · G4690)

9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his seed remains in him)'. 위로부터 태어난 영혼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8절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와 9절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를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죄 사함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특권임을 깊이 되새겨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우리를 위한 칭의(상대적 변화)와 우리 안의 거듭남(실제적 변화) (8절)

하나님은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 칭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신분의 변화와 생명의 변화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 **핵심 메시지:** 칭의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호적의 회복이라면, 거듭남은 아버지를 닮은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STEP 02. 죄를 지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9절 상)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 곧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누립니다.

> **핵심 메시지:** 죄를 이기는 삶은 무거운 의무이기 이전에 거듭난 자녀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STEP 03. 멈추지 않는 영적 호흡: 들이마시는 믿음과 내쉬는 기도 (9절 하)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듯,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이마시고 기도와 감사와 사랑으로 내쉬는 영적 호흡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 **핵심 메시지:** 믿음으로 은혜를 마시고 기도로 호흡하는 동안, 어둠은 결코 우리 영혼을 이기지 못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9)"**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19편(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큰 특권) → 표준설교 제14편(신자의 회개) → 표준설교 제40편(그리스도인의 완전)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오늘 나의 영적 호흡(말씀과 은혜를 믿음으로 들이마시고, 기도와 감사로 내쉬는 일)은 막힘없이 편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2)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있던 작은 습관적 죄 앞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큰 특권'을 선포하며 끊어 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 예수님, 저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사 죄를 이기는 새 생명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믿음과 기도의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빛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20편〕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 (전가된 의와 성결의 조화) (The Lord Our Righteousness)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예레미야 23:5-6〕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65. 11. 24 · 런던 채링 크로스 부근 예배당

〔표준설교 제20편〕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 (전가된 의와 성결의 조화) (The Lord Our Righteousness) · 예레미야 23:5-6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65. 11. 24 · 런던 채링 크로스 부근 예배당)

당시 개혁파 복음주의자들과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ed Righteousness)' 논쟁 속에서 웨슬리가 복음주의 연합과 성경적 균형을 위해 선포한 명설교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수동적 순종의 공로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덮여 있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거룩하다'는 무율법주의(Antinomianism)의 오용을 엄중히 경계했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신적 의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중보자의 의를 통해 '우리의 의(여호와 치드케누)'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성도는 반드시 내면과 삶에 심어 주시는 실제적 성결의 의를 함께 열매 맺습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인가	예레미야 23:5	그리스도의 신적 의와 인성으로 이루신 능동적·수동적 순종의 완전한 의
제2마디 ·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가	예레미야 23:6 상반절	우리의 경건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전가되는(Imputed) 그리스도의 공로
제3마디 · 전가된 의와 내주하는 의의 불가분성	예레미야 23:6 하반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반드시 함께 심어지는(Implanted) 성령의 거룩한 성품

2. 나란히 읽는 말씀 (예레미야 23:5-6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5 'Behold, the days come,' says Yahweh, 'that I will raise to David a righteous Branch, and he shall reign as king and deal wisely, and shall execut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land.
- 6 In his days Judah shall be saved, and Israel shall dwell safely; and this is his name by which he shall be called: Yahweh our righteousness.'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던 어두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솟아날 한 '의로운 가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여호와 치드케누).'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20편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에서 구약의 이 장엄한 메시아 예언을 들고,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의 의가 되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웨슬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두 겹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무한하고 완전한 '신적 의'요, 다른 하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인성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의 율법을 한 점 흠도 없이 행하셨고(능동적 순종), 나아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수동적 순종). 이 두 순종이 합쳐져 한 치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구속의 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됩니까? 우리가 선행을 쌓아 스스로 의로워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세례 요한과 종교개혁자들과 영국 국교회 신조가 고백해 온 이 진리를 웨슬리는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의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함정 하나를 막아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이 더럽고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보신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웨슬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거나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실 때(전가된 의)에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새 생명과 사랑의 성품을 심어 주십니다(심겨진 의, Implanted Righteousness). 법정에서 사면하시는 그리스도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은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체마흐 차디크 (צֶמַח צַדִּיק · H6780 + H6662)

5절 '의로운 가지(a righteous Branch)'. 불성실한 유다 왕들로 인해 잘려 나간 다윗 왕가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싹트게 하시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4-2. 아도나이 치드케누 (יְהוָה צִדְקֵנוּ · H3068 + H6664)

6절 '여호와 우리의 의(Yahweh our righteousness)'.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치드키야후, '여호와는 나의 의')가 이름과 달리 불의로 나라를 무너뜨렸던 역사와 대조하여, 오직 오실 메시아만이 자기 백성의 참된 의가 되심을 선포하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6절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의(아도나이 치드케누)' 앞에 머물러 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한 마디가, 율법주의적 불안과 방종이라는 두 낭떠러지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지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완전한 순종의 의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완전히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완전한 중보자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 **핵심 메시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초는 내 안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순종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입니다.

STEP 02. 믿음으로 입혀 주시는 은혜의 예복, 전가된 의 (6절 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의 피와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복입니다.

STEP 03. 입혀 주신 의(Imputed)와 심어 주신 의(Implanted)의 동행 (6절 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칭의의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심어 주시는 중생과 성화의 역사를 동시에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안주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령의 거룩한 삶과 함께 갑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6)"**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20편(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 → 표준설교 제5편 로마서 4:5(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 표준설교 제40편 빌립보서 3:12-14(그리스도인의 완전)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지하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알량한 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까?

2)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내 삶의 게으름이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6-D 마무리 기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순종과 보혈의 의로 저희를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은혜를 빙자하여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심어 주신 성령의 거룩한 생명으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39편〕 보편적 정신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그리하면 내 손을 잡으라) (Catholic Spirit)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열왕기하 10:15〕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50 출간 · 기독교 연합과 관용의 불후의 고전

〔표준설교 제39편〕 보편적 정신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그리하면 내 손을 잡으라) (Catholic Spirit) · 열왕기하 10:15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50 출간 · 기독교 연합과 관용의 불후의 고전)

교파와 교리 논쟁으로 갈기갈기 찢겨 서로를 이단시하던 18세기 교회를 향해 존 웨슬리가 선포한 가장 넓고도 따뜻한 연합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건넨 한마디—'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그리하면 내 손을 잡으라!'—를 통해, 진리에 대한 타협 없는 확신과 형제를 향한 넓은 사랑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인간의 한계로 인해 모든 신자가 세세한 신학적 의견(Opinion)과 예배 양식(Mode of Worship)까지 똑같아질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같다면 서로 정죄하지 말고 기꺼이 손을 맞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정신(공교회적 사랑)'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의견과 예배 양식의 다양성	열왕기하 10:15 상반절	인간 인식의 한계로 인해 부차적 신학 의견과 외적 예배 형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
제2마디 · 단 한 가지 본질적 물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열왕기하 10:15 중반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마음의 일치
제3마디 · '그리하면 내 손을 잡으라!'	열왕기하 10:15 하반절	진리를 모호하게 섞는 무관심주의가 아니라, 본질적 복음 위에서 손을 맞잡는 보편적 사랑

2. 나란히 읽는 말씀 (열왕기하 10:15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15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15 When he had departed from there, he met Jehonadab the son of Rechab coming to meet him; and he greeted him, and said to him, 'Is your heart right, as my heart is with your heart?' Jehonadab answered, 'It is.' 'If it is, give me your hand.' He gave him his hand; and he took him up to him into the chariot.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본문은 구약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길에서 만나 건넨 짧고도 강렬한 대화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39편 『보편적 정신(Catholic Spirit)』에서 이 구약의 한 장면을 가져와, 생각과 전통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형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풀어냅니다.

웨슬리는 먼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학적 세부 의견(Opinions)에 대해 토씨 하나까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 정치 제도나 기도 방식이나 예배 순서 같은 외적인 예배 양식(Modes of Worship)도 역사적 배경과 양심의 깨달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네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르느냐?'고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신학적 의견이나 우리 교회의 외적 관습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물은 단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Is thy heart right, as my heart is with thy heart)?' 웨슬리는 이 질문을 복음의 심장으로 옮겨 묻습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만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 진실합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까?

만약 상대방이 이 질문에 '예,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비록 그가 세부적인 교리 해석이나 예배 형식에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웨슬리는 외칩니다. '그리하면 내 손을 잡으라(If it be, give me thine hand)!' 물론 이 보편적 정신은 진리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무원칙한 혼합주의나 종교적 무관심(Indifference)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본질 위에는 반석처럼 굳게 서되, 비본질적인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수레에 오르는 것—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보편적 정신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하예쉬 레바브카 야샤르 (הֲיֵשׁ לְבָבְךָ יָשָׁר · H3824 + H3477)

15절 '네 마음도 진실하냐(Is your heart right / upright?)'. 히브리어 '레바브(마음, 중심)'와 '야샤르(곧은, 정직한, 바른)'의 결합입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내면 중심의 진실함을 묻는 말입니다.

4-2. 트나 에트 야데카 (תְּנָה אֶת־יָדֶךָ · H5414 + H3027)

15절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네 손을 내게 달라, Give me your hand)'. 고대 근동에서 손을 맞잡는 행위는 적대감을 거두고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이자 형제로 연합함을 선포하는 공적 표징이었습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15절의 물음('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과 행동('손을 잡으니 끌어 병거에 올리며') 사이에 머물러 봅니다. 나는 나와 조금 다른 스타일이나 의견을 가진 성도를 만날 때, 머리의 의견을 먼저 따져 밀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며 손을 내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의견(Opinion)과 본질(Heart)을 구분하는 지혜 (15절 상)

완전한 빛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성도들 사이에는 비본질적인 신학 의견이나 예배 관습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정죄하는 편협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생각이 같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STEP 02. 복음의 심장을 확인하는 물음: '네 마음이 진실하냐?' (15절 중)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믿음과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중심이 같다면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일치는 외적 획일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일치에서 태어납니다.

STEP 03. 편견의 벽을 넘어 손을 맞잡는 보편적 사랑 (15절 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꺼이 손을 맞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담는 것이 웨슬리의 보편적 정신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열왕기하 10:15)"**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39편(보편적 정신) → 표준설교 제40편 빌립보서 3:12-14(그리스도인의 완전) → 속회와 공동체 영성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신앙의 본질(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랑의 삶)보다 비본질적인 의견이나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오늘 내가 먼저 따뜻한 인사와 기도로 '내 손을 잡으라'며 손을 내밀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좁은 소견과 편견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누고 형제를 판단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는 굳게 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향해 넓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보편적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40편〕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한 사랑으로 빚어지는 성화) (Christian Perfection)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빌립보서 3:12-14〕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41 집필 및 출간 · 옥스퍼드 화이트필드 채플 · 웨슬

〔표준설교 제40편〕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한 사랑으로 빚어지는 성화) (Christian Perfection) · 빌립보서 3:12-14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41 집필 및 출간 · 옥스퍼드 화이트필드 채플 · 웨슬리 성결 신학의 정수)

감리교회의 가장 고유한 영적 유산(Grand Depositum)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교리를 정립한 기념비적 설교입니다. 웨슬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과 15절('온전한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을 함께 읽으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과 은혜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전적 성화)'은 무지나 실수나 연약함이 없는 천사의 완전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악한 성향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Perfect Love)'으로 채워지며 끝까지 푯대를 향해 자라가는 역동적 성숙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않은 영역	빌립보서 3:12	지식·판단의 무오류성이나 육체적 연약함·유혹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님
제2마디 · 성경이 약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빌립보서 3:13	외적 범죄를 넘어 마음의 부패한 성향에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
제3마디 ·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라가는 완전	빌립보서 3:14	정지된 종착점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의 전진

---

2. 나란히 읽는 말씀 (빌립보서 3:12-14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12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or am already made perfect; but I press on, if it is so that I may take hold of that for which also I was taken hold of by Christ Jesus.
- 13 Brothers, I don't regard myself as having yet taken hold,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th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stretching forward to the things which are before,
- 14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으면서도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는 봉우리, 바로 표준설교 제40편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누군가는 '완전(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손사래를 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땅에서 완전해집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설교의 절반을 할애하여 먼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이 아닌가'부터 차근차근 오해를 걷어 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땅에 사는 동안 모르는 것이 많고 판단에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실수나 허물에서 면제되는 완전도 아닙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상황을 잘못 알아 본의 아니게 남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육체와 감정의 연약함이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 가장 거룩한 성도도 유혹을 겪으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웨슬리의 답은 단 한 마디, '온전한 사랑(Perfect Love)'입니다! 첫째는 거듭남을 통해 외적인 범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의 악한 성향—교만, 시기, 악의, 분노, 자기 고집—이 씻겨 나가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요일 4:18).

그러므로 웨슬리의 완전은 '나는 다 이루었으니 더 자랄 필요가 없다'는 교만한 정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온 몸을 기울여 달려가는 '자라가는 완전'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걸림돌을 치워 주시는 성화의 은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테텔레이오마이 (τετελείωμαι · G5048, 완료 수동태) / 텔레이오이 (τέλειοι · G5046)

12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와 15절 '온전한 자들'.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결점 없는 신적 무오류성이 아니라, 본래 지으신 목적과 사랑의 성숙함에 합당하게 도달한 '온전함 · 성숙함'을 뜻합니다.

4-2. 카텔렘프덴 (κατελήμφθην · G2638)

12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먼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로잡으신(선행은총과 부르심)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수동태 고백입니다.

4-3. 에픽테이노메노스 (ἐπεκτεινόμενος · G1901)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몸을 앞으로 길게 뻗으며)'.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상체를 온통 앞으로 기울여 전력 질주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그린 분사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12절의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와 바로 세 절 뒤 15절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를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가 바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역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우리가 구하는 완전은 무오류한 천사의 완전이 아닙니다 (12절)

땅에 사는 성도는 지식의 한계와 판단의 실수와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에서 나오는 본의 아닌 부족함조차 매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덮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실수가 없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연약한 그릇 안에 담기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STEP 02. 마음의 쓴 뿌리를 씻어 내는 '온전한 사랑'의 성화 (13절)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교만과 시기와 분노의 뿌리를 정결하게 씻어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성화의 절정은 내 마음의 모든 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 드리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STEP 03. 뒤를 잊고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끝없는 성장 (14절)

온전한 사랑에 이른 성도일수록 스스로 만족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방해물이 치워졌기에 뒤에 있는 과거의 성취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갑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완전은 멈추어 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달려가는 영원한 전진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립보서 3:13-14)"**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40편(그리스도인의 완전) → 웨슬리 성결 고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 → 표준설교 제43편(성경적 구원의 길)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내 안의 교만이나 미움이나 습관적인 화를 당연한 것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오늘 내가 뒤에 있는 과거의 후회나 자만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온전한 사랑'의 푯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절망시키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임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의 교만과 미움과 자기 고집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뜨겁게 품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43편〕 성경적 구원의 길 (선행은총 · 칭의 · 성화의 대교향곡)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에베소서 2:8〕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65 출간 · 웨슬리 구원의 서정(Ordo Sa

〔표준설교 제43편〕 성경적 구원의 길 (선행은총 · 칭의 · 성화의 대교향곡)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 에베소서 2:8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65 출간 · 웨슬리 구원의 서정(Ordo Salutis) 종합 완결편)

원숙기의 존 웨슬리(1765년)가 평생의 신학적 사유와 목회적 경험을 한데 모아 집대성한 '웨슬리 구원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설교입니다. 1738년 제1편 설교와 동일한 본문(엡 2:8)을 택하여, 구원의 집 현관문(선행은총)과 문턱(칭의 · 중생)과 안방(성화)이 어떻게 모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를 한 폭의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입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성경이 보여 주는 구원은 인간의 첫 작은 각성부터 시작하시는 '선행은총',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칭의와 거듭남', 그리고 마음의 내재하는 죄를 씻어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점진적 · 순간적 성화'로 이어지는 은혜와 믿음의 여정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구원의 세 단계	에베소서 2:8 상반절	선행은총(Prevenient Grace) → 칭의와 거듭남(Justification & New Birth) → 성화(Sanctification)
제2마디 · 칭의와 성화의 유일한 조건: 믿음	에베소서 2:8 중반절	칭의 이전의 첫 회개와 거듭난 후의 신자의 회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성화
제3마디 · 점진적 성화와 순간적 성화의 조화	에베소서 2:8 하반절	은혜의 수단과 선행을 통해 자라가되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는 정결의 은총

2. 나란히 읽는 말씀 (에베소서 2:8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 that we would walk in them.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1738년 올더스게이트 회심 직후 옥스퍼드 강단에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쳤던 존 웨슬리가, 스물일곱 해 동안 영국 전역의 광산촌과 들판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을 목양한 뒤 1765년에 다시 같은 본문을 펼칩니다. 표준설교 제43편 『성경적 구원의 길』입니다. 만약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단 한 편만 읽어야 한다면 모든 신학자들이 주저 없이 꼽는 웨슬리 구원론의 완결판입니다.

웨슬리는 먼저 구원이란 한 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지어 가시는 하나의 긴 호흡임을 보여 줍니다. 그 첫머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행은총(Preventing Grace)'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스치는 첫 번째 선한 소원, 죄에 대한 작은 찔림조차도 실상은 성령께서 먼저 켜 주신 등불입니다. 이 빛을 따라 죄인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의 본류인 '칭의(의롭다 하심)'와 '거듭남(새 탄생)'이 동시에 임합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의 죄책을 사하시는 상대적 변화라면,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실제적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화(Sanctification)'의 길이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라나듯, 거듭난 신자는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며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다 신자는 자기 내면에 아직 남아 있는 교만과 자기 의지의 뿌리를 발견하고 '신자의 회개'를 통과하며, 마침내 마음의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성화'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받으며, 또 어떻게 온전한 성화를 받습니까?' 둘 다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와 은혜의 수단과 자비의 선행은 믿음을 준비하고 자라게 하는 귀한 길목이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결정적인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웨슬리는 점진적 성화와 순간적 성화를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나무가 오랜 세월 서서히 죽어 가지만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이듯, 우리 안의 죄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약해지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카리스 (χάριϛ · G5485) — 선행 · 칭의 · 성화의 삼중 은총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웨슬리는 이 한 단어 '카리스' 안에 (1) 잠든 양심을 깨우시는 선행은총(Prevenient Grace), (2) 죄인을 용서하시는 칭의 은총(Justifying Grace), (3) 마음을 온전한 사랑으로 빚으시는 성화 은총(Sanctifying Grace)이 모두 담겨 있음을 밝힙니다.

4-2. 포이에마 (ποίημα · G4161)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his workmanship)'. 영어 '포엠(시, 예술 작품)'의 어원이 된 낱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를 조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빚어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8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과거의 칭의에서 현재의 성화로 이어지는 구원)'와 10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구원의 목적)'를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선행이 구원의 '원인'은 될 수 없으나 구원받은 삶의 필연적 '열매이자 길목'이 되는 이치를 되새겨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구원의 현관문에서 안방까지: 선행은총 · 칭의 · 성화 (8절 상)

구원은 양심의 첫 깨우침을 주시는 선행은총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칭의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문턱을 건너, 온 마음이 사랑으로 정결케 되는 성화의 안방으로 이어집니다.

> **핵심 메시지:** 구원의 시작도 은혜요, 문턱을 넘는 것도 은혜요,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STEP 02.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8절 중)

우리가 처음 죄 사함을 받을 때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았듯, 거듭난 후 마음의 내재하는 죄를 씻어 내는 온전한 성화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 **핵심 메시지:** 칭의와 성화를 여는 열쇠는 둘 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STEP 03. 선한 일을 힘쓰며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 (8절 하 – 10절)

참된 믿음은 결코 경건의 실천(기도 · 말씀 · 성찬)과 자비의 실천(구제 ·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성실히 걸으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를 정결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성도는 날마다 은혜의 수단 안에서 자라가며(점진적 성화), 동시에 지금 일하시는 성령의 정결케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순간적 성화).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43편(성경적 구원의 길) → 구원의 서정 총론(선행은총에서 영화까지) → 표준설교 제85편 빌립보서 2:12-13(구원을 이루라)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구원의 집(현관문인 선행은총 → 문턱인 칭의와 거듭남 → 안방인 성화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지금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지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2) 나는 거룩해지는 일을 오직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려다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도 정결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6-D 마무리 기도

저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선행은총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문턱에만 머물지 않고 성화의 깊은 방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성실히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성결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45편〕 거듭남 / 새 탄생 (영적 감각이 열리는 생명의 변화) (The New Birth)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요한복음 3:7〕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60 출간 · 『수개의 설교집』 제4권 수록 ·

〔표준설교 제45편〕 거듭남 / 새 탄생 (영적 감각이 열리는 생명의 변화) (The New Birth) · 요한복음 3:7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60 출간 · 『수개의 설교집』 제4권 수록 · 중생론의 표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Ye must be born again)'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지(Why), 어떻게 거듭나는지(How), 그리고 왜 세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없는지를 명쾌한 비유로 풀어낸 설교입니다. 조지 휫필드와 존 웨슬리가 평생 수백 번씩 외쳤던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거듭남(위로부터 태어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외적 예식인 세례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는 내적 새 창조로서 닫혔던 영적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과 사귀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왜 거듭나야 하는가 (Why)	요한복음 3:7 상반절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의와 거룩함)을 상실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상태
제2마디 · 어떻게 거듭나는가 (How)	요한복음 3:7 중반절	모태 속에서 잠든 아기가 세상의 빛과 소리와 공기를 마시듯 영적 감각이 열리는 사건
제3마디 · 무엇을 위하여 거듭나는가 (Whereunto)	요한복음 3:7 하반절	외적 세례 예식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함과 참된 행복(행복과 성결의 일치)으로 나아감

2. 나란히 읽는 말씀 (요한복음 3:7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5 Jesus answered, 'Most certainly I tell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spirit, he can'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 6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 7 Don'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new."'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누군가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어딜 가나 매번 거듭나야 하겠다(You must be born again)고 설교하십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무거웠습니다. '그야 여러분이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설교 제45편 『거듭남(새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왜 도덕적 수양이나 종교적 개선이 아닌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 질문(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으로 풀어냅니다.

첫째, 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까?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덕적 형상' 곧 사랑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하던 그날 육신은 당장 죽지 않았으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끊어져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영적 죽음, 곧 교만과 자기 고집과 세상 사랑이라는 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을 조금 고치는 수선으로는 안 되고, 위로부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둘째, 거듭남이란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웨슬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비유를 듭니다. 태아는 생명이 있으나 아직 눈이 닫혀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며,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눈이 열려 빛을 보고, 귀가 열려 소리를 들으며, 폐가 열려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거듭남도 꼭 이와 같습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땅의 것에는 똑똑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눈과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의 '영적 감각(Spiritual Senses)'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영혼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호흡으로 성령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시작합니다.

셋째, 웨슬리는 분명히 못 박습니다. 물세례(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외적 표징인 세례와 내적 은혜인 거듭남은 구분됩니다. 세례를 받고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거룩해져야만 비로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겐네데나이 아노덴 (γ ε ν ν η θ ῆν α ι ἄν ω θ ε ν · G1080 + G0509)

7절 '거듭나야(be born anew / from above)'. 부사 '아노덴'은 시간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새로(anew)'라는 뜻과 공간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from above)'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인간의 밑바닥 노력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새 창조임을 보여 줍니다.

4-2. 데이 (δ ε ῖ · G1163)

7절 '거듭나야 하겠다(You must)'.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하나님의 법칙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비인칭 동사입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6절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와 7절의 '거듭나야(아노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사이에 머물러 봅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빛을 보고 숨을 쉬듯, 내 영혼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숨 쉬고 있는지 조용히 짚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영적 죽음의 실상과 거듭남의 필연성 (5 – 6절)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인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죽은 나무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살아나지 않듯, 도덕적 교양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핵심 메시지:**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활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STEP 02. 닫혔던 영적 감각이 열려 호흡하는 새 탄생 (7절 상)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립니다. 전에는 막연한 교리로만 들리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됩니다.

> **핵심 메시지:** 거듭남은 닫혔던 영혼의 창문이 열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성령의 숨결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STEP 03. 외적 세례에 안주하지 않고 성결과 참된 행복으로 나아감 (7절 하)

물세례는 거룩한 외적 표징이나, 그 자체가 내면의 거듭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다스리며 거룩함(성화)으로 자라가고, 그 거룩함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7)"**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45편(거듭남 / 새 탄생) → 표준설교 제18편 요한복음 3:8(거듭남의 표지) → 표준설교 제14편 마가복음 1:15(신자의 회개)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신앙생활에는 살아 있는 아기가 숨을 쉬듯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흡(기도와 감사)'과 '영적 감각(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살아 있습니까?

2) 웨슬리가 말한 '거룩함과 행복은 하나다(거룩한 만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나의 지난 삶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공감이 일깨워집니까?

6-D 마무리 기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육으로 난 저희의 한계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닫혔던 저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보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늘의 숨결을 호흡하며 거룩함 속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준설교 제50편〕 돈의 사용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아끼고, 나누어 주라) (The Use of Money)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누가복음 16:9-11〕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60 출간 · 웨슬리 기독교 경제 윤리 및 청지

〔표준설교 제50편〕 돈의 사용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아끼고, 나누어 주라) (The Use of Money) · 누가복음 16:9-11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60 출간 · 웨슬리 기독교 경제 윤리 및 청지기 신학의 고전)

기독교 사회 윤리와 경제 윤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로 손꼽히는 표준설교 제50편 『돈의 사용』 입니다. 근면과 절제로 부유해지기 시작한 초기 감리교도들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간파한 웨슬리는, 세 번째 원칙인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누어 주라(Give all you can)'를 실천하지 않으면 앞의 두 원칙(벌고 아낌)은 오히려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독이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 자신은 평생 수만 파운드의 인세를 벌어 단 한 푼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빈민 구제와 복음 사역에 다 나누어 주고 은화 몇 닢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잠시 맡기신 달란트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내 영혼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벌고(Gain all you can)', 사치와 욕망을 절제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다 아끼며(Save all you can)', 마침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누어 주어야(Give all you can)' 합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원칙 · 할 수 있는 대로 다 벌라 (Gain all you can)	누가복음 16:9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한 노동과 성실
제2원칙 · 할 수 있는 대로 다 아끼라 (Save all you can)	누가복음 16:10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사치와 낭비를 끊어 내는 검소함
제3원칙 ·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라 (Give all you can)	누가복음 16:11	모든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가족의 필요 외의 모든 것을 이웃과 복음을 위해 흘려보냄

2. 나란히 읽는 말씀 (누가복음 16:9-11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9 I tell you, make for yourselves friends by means of unrighteous mammon, so that when you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tents.

- 10 H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is faithful also in much. He who is unrighteous in a very little is also unrighteous in much.
- 11 If therefore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mammon, who will commit to your trust the true riches?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 끝에 들려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섬기거나, 반대로 영적인 체하는 사람들은 돈을 무조건 더러운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제50편 『돈의 사용』에서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세 가지 황금률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잘못 쓰이는 것이 문제일 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손에서 돈은 배고픈 자의 떡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벌라(Gain all you can)'입니다. 성도는 게으르지 않고 자기 생업에 지혜와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생명을 갉아먹거나 내 영혼의 평안을 해치는 대가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웃의 몸이나 재산이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거래나 유해한 산업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땀방울로 이웃을 이롭게 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아끼라(Save all you can)'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허공에 날려 버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육신의 정욕(과도한 미식과 향락), 안목의 정욕(화려한 장신구와 값비싼 가구와 사치스러운 옷), 이생의 자랑(남들에게 칭찬받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과시적 소비)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녀들에게 사치스러운 욕망을 길러 주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돈을 쌓아 두는 것도 그 자녀의 영혼에 독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진짜 결론인 세 번째 규칙,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누어 주라(Give all you can)'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벌고 검소하게 아껴서 통장에 돈만 쌓아 둔다면, 우리는 앞의 두 규칙을 지킨 덕분에 오히려 재물의 덫에 빠져 지옥에 더 가까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소박한 생계와 일터의 정당한 운영에 필요한 몫을 채운 뒤 남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가난한 형제와 굶주린 이웃을 살리는 데 기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는 청지기의 길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마모나 테스 아디키아스 (μαμωνᾶ τῆς ἀδικίας · G3126 + G0093)

9절 '불의의 재물(unrighteous mammon)'. 아람어 '마몬(재물)'에서 온 말로,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을 쉽게 속이고 이 땅을 떠날 때 함께 사라져 버리는 덧없고 불완전한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4-2. 피스토스 엔 엘라키스토 (πιστὸς ἐν ἐλαχίστῳ · G4103 + G1646)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영원한 하늘의 참된 부요함(토 알레디논)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금은보화는 '지극히 작은 것(엘라키스톤)'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맡김에 청지기로서 신실한 자에게 주님은 참된 영적 부요함을 맡기십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11절의 대조('불의한 재물〔잠시 맡기신 땅의 것〕' ↔ '참된 것〔영원한 하늘의 보화〕') 앞에 머물러 봅니다. 웨슬리의 세 문장 '할 수 있는 대로 벌라 · 할 수 있는 대로 아끼라 ·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중 오늘 내 삶에서 가장 균형이 무너져 있는 고리가 어디인지 정직하게 짚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정직한 땀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벌라 (9절)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다만 내 영혼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웃의 삶에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하고 유익한 길 안에서만 성실히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이웃을 해치거나 양심을 팔아 얻은 이익은 복이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STEP 02. 욕망과 과시를 덜어 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아끼라 (10절)

사치와 허영과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에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박하고 절제된 삶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몫을 아끼는 충성입니다.

> **핵심 메시지:** 절제는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사랑의 여백을 넓히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STEP 03. 청지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누어 주라 (11절)

벌고 아끼는 모든 목적은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내 손에 맡겨진 물질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살리는 자비의 통로로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고인 물이 썩듯 쌓아만 둔 재물은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흘려보낸 물질은 영원한 처소의 열매로 남습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10)"**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표준설교 제50편(돈의 사용) → 속회와 자비의 실천 → 표준설교 제85편 빌립보서 2:12-13(구원을 이루라)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지출 내역을 주님 앞에 펼쳐 놓는다면, '필요를 채우는 지출'과 '안목의 정욕 · 과시를 위한 지출'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나눔'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2) 오늘 내 손에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가운데,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6-D 마무리 기도

천지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물질을 마치 내 영원한 소유인 양 움켜쥐고 자랑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해치지 않는 정직한 땀으로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허영과 사치를 덜어 내어 검소히 아끼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지친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기 명설교 제85편〕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응답)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 매일말씀 스타일 강해

〔빌립보서 2:12-13〕 존 웨슬리 표준설교 · 1785 출간 · 노년의 웨슬리가 남긴 신인협동(S

〔후기 명설교 제85편〕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응답)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 빌립보서 2:12-13

1. 설교 개관 · 그날의 강단과 중심 메시지

1-A 설교가 선포된 자리 (1785 출간 · 노년의 웨슬리가 남긴 신인협동(Synergism)과 선행은총의 결정판)

여든두 살의 노사도 존 웨슬리가 1785년에 발표한 후기 대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냐'라는 오랜 신학적 난제를 빌립보서 2장 12~13절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통합해 냈습니다. 이 설교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명제를 인용한 웨슬리의 불멸의 문장,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 없이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 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가 담겨 있습니다.

1-B 오늘의 중심 메시지

> **먼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13절)가 있기에, 우리는 게으른 방관자가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12절).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1-C 설교의 세 걸음 구조표

마디	본문	중심 내용
제1마디 ·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13절)	빌립보서 2:13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선행은총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2마디 ·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12절)	빌립보서 2:12	깨우침에서 칭의로, 칭의에서 전적 성화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성도의 응답
제3마디 · 은혜와 책임의 두 날개	빌립보서 2:12-13 합독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너희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너희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

2. 나란히 읽는 말씀 (빌립보서 2:12-13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공유 저작물)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Public Domain)

- 12 So then, my beloved, even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 13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여든두 살의 백발 목회자 존 웨슬리가 평생의 복음 사역을 갈무리하며 남긴 보석 같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제85편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나란히 읽어 보십시오.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의 전심전력을 명하고, 바로 다음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간의 편향된 이성은 늘 이 두 절 중 하나만 붙들고 다른 하나를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절을 '왜냐하면(가르)'이라는 접속사 하나로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웨슬리는 왜 본문의 논리적 기초인 13절부터 먼저 살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성령께서 먼저 비추시는 '선행은총(Preventing Grace)'의 빛이 있습니다. 소위 '자연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상은 자연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은총이 마음에 남겨 둔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심판 날에 '나는 은혜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작은 소원(To will)도, 그 소원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힘(To do)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 우리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정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선언합니다. 웨슬리는 이 역설을 두 문장으로 빛나게 요약합니다. 첫째, 'God works; therefore you CAN work.'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던 거룩함과 순종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God works; therefore you MUST work.'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응답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그 은혜마저 거두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 웨슬리는 외칩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 없이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 없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돌리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원어 데이터: SBLGNT / STEPBible TAHOT · Strong 번호 병기)

4-1. 카테르가제스데 (κατεργάζεσθε · G2716)

12절 '이루라(work out)'. 접두사 '카타(끝까지, 철저히)'와 '에르가조마이(일하다)'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 내라(earn)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광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끝까지 캐내고 꽃피우라는 뜻입니다.

4-2. 호 에네르곤 (ὁ ἐνεργῶν · G1754)

13절 '행하시는 이(who works in you)'. 영어 '에너지(Energy)'의 어원이 된 단어로, 성도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며 거룩한 소원과 실행할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4-3. 토 델레인 카이 토 에네르게인 (τὸ θέλειν καὶ τὸ ἐνεργεῖν · G2309 + G1754)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both to will and to work)'. 선을 향한 첫 마음의 소원(델레인, 선행은총)부터 그 소원을 삶으로 살아 내는 능력(에네르게인, 협동은총과 성화은총)까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밝힙니다.

문맥 속 머물 자리 〔관찰과 묵상〕

12절의 동사 '카테르가제스데(너희 구원을 끝까지 일구어 내라)'와 13절의 분사 '호 에네르곤(너희 안에서 에너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머물러 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수동성을 변명하는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이유가 됨을 묵상해 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은총 (13절)

구원의 첫 빛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갈망과 양심의 찔림, 기도하고 싶은 작은 소원조차도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호 에네르곤)입니다.

> **핵심 메시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작은 갈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STEP 02.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우리도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합니다 (12절 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던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시기에 우리는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은혜는 게으름의 침대가 아니라 거룩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동력입니다.

STEP 03. 두렵고 떨림으로 칭의에서 온전한 성화까지 나아감 (12절 하)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종의 공포가 아니라,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거룩한 경외심과 깨어 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모든 영광과 공로는 오직 주님께 돌리되, 오늘 나의 걸음은 주님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내디뎌야 합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6-B 이어지는 길 (구원의 서정 연결)

설교 제85편(구원을 이루라) → 구원의 서정 총론(선행은총에서 영화까지) → 표준설교 제1편 에베소서 2:8-9(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 수미상관)

6-C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요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룩한 부담이나 순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6-D 마무리 기도

저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사랑의 인격으로 부르사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거나 게으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순종과 성화를 끝까지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서정 총론〕 선행은총에서 영화까지 (Ordo Salutis) — 한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

〔디도서 2:11-14 · 에베소서 2:8-10〕 웨슬리 조직신학 핵심 총람 · 구원의 7단계 여정

〔구원의 서정 총론〕 선행은총에서 영화까지 (Ordo Salutis) · 디도서 2:11-14

1. 개관 · 웨슬리가 그린 '하나님의 은혜의 집'

1-A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이 놓인 자리

존 웨슬리에게 신학은 상아탑의 사변이 아니라 '한 죄인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가'를 안내하는 치유의 지도였습니다. 말년의 웨슬리는 이 구원의 길을 한 채의 집을 짓고 들어가는 비유로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 **현관문 (The Porch of Religion):**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의 양심을 먼저 일깨워 문 앞까지 이끌어 주시는 **선행은총(Prevenient Grace)**과 **회개(Repentance)**입니다.
- **문턱 (The Door of Religion):**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칭의(Justification)**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New Birth)**입니다.
- **집 안방 (Religion Itself):**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모든 부패함이 씻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화(Sanctification)**와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입니다.

1-B 구원의 서정 7단계 한눈에 보기

단계	신학 명칭	핵심 성구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
제1걸음	선행은총 (Prevenient Grace)	요 1:9; 빌 2:13	타락으로 잠든 양심을 깨우시고 선을 향한 첫 소원과 선택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
제2걸음	첫 번째 회개 (Conviction & Repentance)	막 1:15; 행 2:37	성령의 찔림 속에서 내 죄책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고 돌이킴
제3걸음	칭의 (Justification / Pardon)	롬 4:5; 엡 2:8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정적 사면
제4걸음	거듭남과 양자 됨 (New Birth & Adoption)	요 3:7; 롬 8:15-16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내적 변화. 영적 감각이 열리고 성령의 증거로 '아바 아버지'라 부름
제5걸음	점진적 성화와 신자의 회개	벧후 3:18; 갈 5:17	은혜의 수단 안에서 자라가며 내면 깊은 곳에 남은 '내재하는 죄(교만 · 자기 의지)'를 직시함
제6걸음	전적 성화 / 그리스도인의 완전	살전 5:23; 요일 4:18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에 이름
제7걸음	견인과 영화 (Glorification)	롬 8:30; 빌 3:21	끝까지 은혜 안에서 깨어 달려가 마침내 몸의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함

2. 나란히 읽는 말씀 (디도서 2:11-14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 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11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 12 instructing us to the intent that, denying ungodliness and worldly lusts, we would live sober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is present world;
- 13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 14 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all iniquity, and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zealous for good works.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성경이 들려주는 구원의 이야기는 얼마나 넓고도 깊습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 2장 11절에서 14절은, 단 한 문장 안에 웨슬리가 평생 설교했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보석처럼 꿰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의 첫 장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버려두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요 1:9)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잠든 영혼의 문밖에서 먼저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한 '선행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14절이 그 두 기둥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우리를 구속하시고(뤼트로세타이)'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전의 피로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감옥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 내시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카다리세)'입니다. 죄의 빚만 탕감해 주시고 마음은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정욕과 교만을 씻어 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는 '성화'의 은총입니다.

12절은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세 단어로 그립니다. 자신을 향하여는 근신함(절제)으로, 이웃을 향하여는 의로움과 자비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건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걸음의 끝자락에 있는 '복스러운 소망',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 사함의 문턱에 들어선 것으로 만족하여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현관문을 지나 문턱을 넘어, 온전한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안방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4-1. 소테리오스 파신 안드로포이스 (σωτήριος πᾶσιν ἀνθρώποις · G4992 + G3956 + G0444)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구원의 은혜가 특정 소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만민을 향해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구절로, 웨슬리의 보편적 속죄와 선행은총 신학의 성경적 기둥입니다.

4-2. 뤼트로세타이 (λυτρώσηται · G3084)와 카다리세 (καθαρίσῃ · G2511)

14절 '구속하시고(속전을 치르고 해방하심 — 칭의)'와 '깨끗하게 하사(정결하게 씻으심 — 성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목적이 단지 법정적 사면(뤼트로시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실질적 정결(카다리조)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창조하는 데 있음을 한 호흡으로 보여 줍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선행은총과 회개 (11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은총'이 양심을 깨우고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 **핵심 메시지:**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의 선행은총이 먼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STEP 02. 동시에 열리는 두 문, 칭의(상대적 변화)와 거듭남(실제적 변화) (12절)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 법정에서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칭의)이 선언되고, 성도의 심령 안에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거듭남)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만 하시고 생명을 주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칭의와 거듭남은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STEP 03. 성화의 안방에서 영화의 새벽으로 (13－14절)

거듭난 성도는 기도와 말씀과 성찬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은혜의 수단 속에서 자라가며, 마음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는 온전한 성화를 누리고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영화)를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 **핵심 메시지:** 구원의 목적은 지옥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14)**

6-B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부터 내 삶을 지키고 이끌어 주셨던 '선행은총'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2) 나는 죄 사함(칭의)의 문턱에 앉아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빚으시는 성화의 안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6-C 마무리 기도

저희를 구원하시되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든 저희를 선행은총으로 깨우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의 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문턱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건함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슬리 성경 해석학〕 한 권의 책의 사람 (Homo Unius Libri)과 웨슬리 신학의 네 기둥 — 성경 · 전통 · 이성 · 경험

〔디모데후서 3:15-17〕 웨슬리 성경관 및 신학 방법론 · 『표준설교집 서문(1746)』 해제

〔웨슬리 성경 해석학〕 한 권의 책의 사람 (Homo Unius Libri)과 네 기둥 · 디모데후서 3:15-17

1. 개관 · '하늘로 가는 길을 알고자 나는 한 권의 책을 펼칩니다'

1-A 1746년 『표준설교집 서문』의 불멸의 고백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학으로 고전 헬라어와 라틴어, 히브리어와 당대 유럽의 철학·과학 서적을 두루 섭렵했던 존 웨슬리는, 1746년 『수개의 설교집(표준설교집)』 서문에서 자신의 평생 연구 원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알고 싶습니다. 곧 어떻게 하면 저 행복한 해안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한 권의 책을 내려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책들로부터 눈을 돌려 이 한 권의 책에 잠깁니다. 오, 나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게 하소서!"*

1-B 웨슬리 성경 해석의 네 기둥 (Wesleyan Quadrilateral)

웨슬리가 말한 '한 권의 책의 사람'은 다른 모든 학문이나 역사를 무시하는 반지성주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Scripture)**을 구원 진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천(Primary Authority)으로 삼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전통(Tradition)**, **이성(Reason)**, **경험(Experience)**을 세 가지 선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기둥	위상과 역할	웨슬리의 실제 적용 원칙
1. 성경 (Scripture)	유일한 절대 규범 (Norma normans)	신앙과 실천의 최종 재판관. 모호한 구절은 명백한 구절과 성경 전체의 맥락('신앙의 유비', 롬 12:6)으로 해석함
2. 전통 (Tradition)	역사적 검증의 거울	초대교부들과 종교개혁 신조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교회적으로 읽어 왔는지 경청하여 사적인 억지 해석을 방지함
3. 이성 (Reason)	논리적 분별의 도구	이성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나,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이해하고 모순 없는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물
4. 경험 (Experience)	생명의 내적 확증	성경이 약속한 죄 사함과 거듭남과 성결이 오늘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 말씀의 참됨을 확증함

2. 나란히 읽는 말씀 (디모데후서 3:15-17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15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 16 Every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instruction which is in righteousness,
- 17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 없이 듣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존 웨슬리가 평생 붙들었던 성경 읽기(성경 상고)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스스로를 '한 권의 책의 사람(호모 우니우스 리브리)'이라 불렀습니다. 평생 말 잔등 위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기독교 문고(Christian Library)』 50권을 편찬했던 그가 왜 자신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 불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책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태양 빛 아래 비추어 볼 때에만 제자리를 찾으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한 권에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우리에게 물려준 성경 읽기의 법칙은 놀랍도록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한 구절을 떼어 내어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 · 외적 성화—라는 '신앙의 유비(Analogy of Faith)' 안에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바온 매일말씀』에서 사사로운 상상을 보태지 않고 본문 그 자체에 머물며 앞뒤 문맥과 원어의 결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웨슬리의 성경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로, 웨슬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앞서 간 성도들의 발자취(전통)와 건전한 분별력(이성),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체험(경험)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뜻이 어려울 때에는 나 혼자만의 기발한 해석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주석과 교회의 유산을 참고하며, 무엇보다 오늘 읽은 한 구절이 내 양심을 찌르고(책망), 어그러진 걸음을 고쳐 주며(바르게 함),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가도록(의로 교육함) 내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이것이 웨슬리가 걸었던 '한 권의 책의 길'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4-1. 데오프뉴스토스 (θεόπνευστος · G2315)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God-breathed)'. '데오스(하나님)'와 '프네오(숨을 불어넣다)'의 합성어입니다. 성경 문자가 죽은 잉크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있는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의 말씀임을 보여 줍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의 눈도 열어 주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4-2. 아르티오스 (ἄρτιος · G0739)와 에크제르티스메노스 (ἐξηρτισμένος · G1822)

17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르티오스'는 부족함 없이 균형 잡힌 상태를, 완료 수동태 분사 '에크제르티스메노스'는 항해를 떠나는 배에 모든 장비가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칭의(구원에 이르는 지혜, 15절)로 이끌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성화(17절)로 무장시킵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유일한 원천, 성경 (15절)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 전통이나 신비적 체험도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 **핵심 메시지:** 신앙의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언제나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여야 합니다.

STEP 02. 신앙의 유비와 전통 · 이성 · 경험의 조화로운 섬김 (16절)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 내지 않고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적 전통과 성령께 조명받은 이성과 거듭난 신자의 체험은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더욱 밝히 드러내는 시녀들입니다.

> **핵심 메시지:** 건강한 성경 읽기는 차가운 지성주의와 맹목적 열광주의를 모두 넘어 말씀과 성령의 균형 위에 섭니다.

STEP 03. 머리의 지식을 넘어 '모든 선한 일'로 완성되는 말씀 (17절)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 박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말씀은 읽는 자의 삶을 고치고 선한 일로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쉽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6-B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확인받으려고 필요한 구절만 골라 읽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시도록 내 삶을 성경 앞에 내려놓습니까?

2) 오늘 하루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영상들을 잠시 줄이고,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 시간은 언제입니까?

6-C 마무리 기도

살아 계신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읽는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 주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슬리 성결 고전 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풀어읽기

〔요한일서 4:16-18 · 마태복음 22:37-39〕 존 웨슬리 저 (1766년 출간) · 40년 성결 사상의 집대성 해제

〔웨슬리 성결 고전 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 · 요한일서 4:16-18

1. 고전 개관 · 40년 동안 한 줄기로 흘러온 '온전한 사랑'의 탐구

1-A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1766)이 탄생한 배경

존 웨슬리는 1766년, 자신의 성화론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공격에 답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성결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1725년 스물두 살의 나이에 제러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윌리엄 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읽으며 '마음의 순수성(Purity of Intention)'에 눈을 떴던 순간부터 1766년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자신이 일관되게 가르쳐 온 성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1-B 고전의 핵심 문답 요약표

핵심 질문	웨슬리의 성경적 답변
Q1.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순수한 사랑(Pure Love reigning alone in the heart and life)"**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Q2. 완전에 이른 사람도 실수나 허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동안 기억의 한계나 판단의 오류로 본의 아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속에도 악의가 없으며, 그 허물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Q3. 완전에 이르면 주기도문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비추면 날마다 부족함이 있기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며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Q4. 이 은혜는 죽는 순간에야 받습니까,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점진적으로 자라가되 지금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2. 나란히 읽는 말씀 (요한일서 4:16-18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16 We know and have believed the love which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he who remains in love remains in God, and God remains in him.

- 17 In this love has been made perfect among us, that we may have boldness in the day of judgment, because as he is, even so are we in this world.
- 18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has punishment. He who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기독교 고전 가운데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만큼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따뜻하게 녹여 주는 책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완전'이나 '성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차갑고 경직된 도덕군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사십 년 세월을 바쳐 성경에서 찾아낸 완전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온전한 사랑(헤 텔레이아 아가페)'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청년 시절인 1725년,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수한 의도'가 진정한 경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거룩함이 인간의 율법적 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서 웨슬리는 성결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을 세심하게 어루만집니다. 첫 번째 극단은 '이 땅에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죽을 때까지 죄와 적당히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입니다. 웨슬리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들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까!

두 번째 극단은 '나는 완전해졌으니 이제 실수도 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웨슬리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 교만을 꾸짖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사랑으로 정결해진 성도라도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판단이 어두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러한 본의 아닌 실수조차도 속죄가 필요하기에, 가장 거룩한 성도야말로 매 순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내 힘을 자랑하는 교만의 봉우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삶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4-1. 헤 아가페 테텔레이오타이 (ἡ ἀγάπη τετελείωται · G0026 + G5048)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love has been made perfect among us)'. 요한일서에서 '완전(텔레이오오)'의 주어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그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4-2. 헤 텔레이아 아가페 (ἡ τελεία ἀγάπη · G5046 + G0026)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perfect love casts out fear)'. 마음속에 자기 사랑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왕좌를 차지할 때, 형벌에 대한 종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녀의 담대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의도의 순수성에서 시작된 40년의 순례 (16절)

거룩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금욕적 고행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려는 '마음의 단일함(Singleness of Eye)'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차가운 완벽주의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단순함입니다.

STEP 02.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온전한 사랑 (17절)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에 지식과 판단의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전지전능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 **핵심 메시지:** 머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STEP 03. 깊어질수록 더욱 십자가만 의지하는 성결 (18절)

성화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수록 성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성결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는 완전하다'는 자랑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는 겸손과 온유와 감사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18)**

6-B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내가 생각하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는 차가운 완벽주의자에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연약함을 품어 주는 따뜻한 '온전한 사랑'의 사람에 가까웠습니까?

2) 오늘 내 마음에서 두려움과 계산을 몰아내고 주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 달라고 구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6-C 마무리 기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의 두려움과 이기심과 좁은 마음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녹여 주시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리교 역사 사료〕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이상하게 뜨거워진 가슴 (1738년 5월 24일) — 엡워스의 불길에서 세계 교구 선언까지

〔로마서 8:1-2 · 스가랴 3:2〕 존 웨슬리 일기(Journal) 및 서신 사료 원문 대조 해제

〔감리교 역사 사료〕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이상하게 뜨거워진 가슴 · 로마서 8:1-2

1. 역사 개관 ·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떻게 한 시대를 깨웠는가

1-A 네 장면으로 보는 존 웨슬리(1703~1791)의 생애 전환점

연도	장소와 사건	핵심 사료 문구	신학적 의미
1709. 02. 09	엡워스 목사관 화재 구조 (6세)	*"어찌 이 아이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a brand plucked out of the burning, 슥 3:2)가 아니겠는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명 의식의 출발
1729 ~ 1737	옥스퍼드 홀리클럽 & 조지아 선교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갔으나, 아!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1738. 01 귀국선 일기)	율법적 고행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음을 절감한 '거의 그리스도인'의 시기
1738. 05. 24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밤	*"밤 9시 15분경…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일기 원문)	모라비안 피터 뵐러의 조언과 루터의 로마서 서문 낭독을 통해 칭의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체험한 복음적 회심
1739. 04 ~ 06	브리스톨 야외 설교와 세계 교구 선언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깁니다(I look upon all the world as my parish)."* (1739. 06. 11 서신)	닫힌 예배당 문턱을 넘어 탄광촌 광부들과 가난한 민중 속으로 뛰어든 복음 전도의 대폭발

2. 나란히 읽는 말씀 & 1738년 5월 24일 일기 원문 대조

2-A 성경 본문 (로마서 8:1-2 · 개역한글판)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B 존 웨슬리 일기 원문 대조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 Public Domain)

- **English Original:** *"In the evening I went very unwillingly to a society in Aldersgate Street, where one was reading Luther's preface to the Epistle to the Romans. About a quarter before nine, while he was describing the change which God works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and an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and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 **우리말 번역:**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 갔다. 거기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죄, 바로 나의 죄를 거두어 가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런던의 하루는 새벽 다섯 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 선교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서른다섯 살의 존 웨슬리는 그날 아침 성경이 열려진 곳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오후에는 세인트폴 대성당 저녁 예배에 참석해 성가대가 부르는 시편 130편 찬양을 듣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그에게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는 '매우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very unwillingly)' 올더스게이트 거리 넷틀턴 코트의 작은 모임방으로 걸어갑니다. 왜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옥스퍼드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감옥의 죄수들을 돌보고 대서양을 건너 선교까지 다녀왔건만,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찬송을 부르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평안과 확신이 자기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직후 만난 모라비안 목회자 피터 뵐러가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을 얻은 뒤에 믿음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권면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율법의 겨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덟 시 사십오 분경, 강단에 선 유명 설교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평신도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참된 믿음이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읽혀지던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불꽃이 웨슬리의 얼어붙은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동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교리를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 밤에는 '그분께서 내 죄, 바로 나의 죄(my sins, even mine)를 거두어 가셨다'는 인격적 확신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한 밤의 뜨거운 가슴이 이듬해인 1739년 브리스톨 탄광촌의 새벽 들판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교회들이 그의 설교를 막아서자, 그는 조지 휫필드의 초청을 받아 킹스우드 언덕의 석탄 광부들 앞에 섭니다. 시커먼 탄가루가 묻은 광부들의 뺨 위로 하얀 눈물 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웨슬리는 선언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깁니다!' 올더스게이트의 작은 방에서 켜진 한 등불이 대영제국을 넘어 온 세계를 비추는 복음의 등대가 된 것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사료 열쇠 말

4-1. 카타크리마 (κατάκριμα · G2631)와 엘류데로오 (ἐλευθερόω · G1659)

로마서 8장 1~2절의 '결코 정죄함(카타크리마)이 없나니'와 '너를 해방하였음이라(엘류데로오)'.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일기 마지막 문장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로, 과거 죄책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칭의)과 현재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거듭남과 성화)이 한순간에 함께 임했음을 보여 줍니다.

4-2. 나의 죄, 바로 나의 죄 (My sins, even mine)

올더스게이트 회심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일반적 동의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 신뢰로의 도약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내키지 않는 발걸음조차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섭리 (올더스게이트 저녁)

웨슬리는 그날 밤 마음이 지치고 내키지 않았으나 성경 말씀과 예배와 성도의 모임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 지친 발걸음으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찾은 그 겸손한 기다림 위에 찾아오십니다.

> **핵심 메시지:** 마음이 무겁고 내키지 않는 날일수록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발걸음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STEP 02. 세상의 구주에서 '바로 나의 구주'로 만나는 뜨거운 가슴 (로마서 8:1-2)

남들의 신앙 간증이나 신학 서적의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찾아오사 '주님이 바로 너의 죄를 사하셨다'고 일깨워 주실 때 종의 두려움이 녹아내립니다.

> **핵심 메시지:** 참된 회심은 복음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일어납니다.

STEP 03. 골방의 뜨거운 가슴에서 세상을 품는 넓은 가슴으로 (세계 교구 선언)

올더스게이트의 내적 확신은 골방의 신비주의에 머물지 않고, 소외된 탄광촌 광부들과 가난한 고아들과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가는 '세계를 교구로 삼는 사랑'으로 타올랐습니다.

> **핵심 메시지:**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은 언제나 가장 차갑고 어두운 세상의 현장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2)**

6-B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나의 신앙 여정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내 죄,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으로 가슴 뜨겁게 다가왔던 올더스게이트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2)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나의 작은 교구')에서 내가 따뜻한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6-C 마무리 기도

깊은 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내키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왔던 웨슬리의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녹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치고 식어 버린 저희의 마음도 다시 뜨겁게 데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죄, 바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굳게 믿는 감격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슬리 공동체 영성〕 속회(Class Meeting)와 일반규칙 — 경건의 실천과 자비의 실천이 만나는 작은 식탁

〔히브리서 10:24-25 · 야고보서 5:16〕 웨슬리 공동체 영성 · 속회와 일반규칙 (1743)

〔웨슬리 공동체 영성〕 속회(Class Meeting)와 일반규칙 · 히브리서 10:24-25

1. 개관 · 왜 설교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모이는 식탁'이 필요한가

1-A 1742년 브리스톨에서 시작된 속회(Class Meeting)의 탄생

1742년 2월, 브리스톨 예배당의 건축 부채를 갚기 위해 성도들을 열두 명씩 한 조(Class)로 묶어 조장(Leader)이 매주 각 가정을 방문해 1페니씩 헌금을 모으던 작은 일에서 뜻밖의 영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조장들이 성도들을 찾아가 보니, 가정의 아픔과 영적 갈등과 유혹 속에서 홀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목양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때부터 속회는 매주 열두 명 안팎의 성도가 둘러앉아 한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How does your soul prosper?)"**

1-B 연합속회 3대 일반규칙 (The Three General Rules, 1743)

속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웨슬리는 복잡한 교리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장차 임할 진노에서 피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진실한 열망'**이 있는지를 묻고, 그 열망이 진짜라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규칙을 함께 지켰습니다.

3대 일반규칙	웨슬리의 신학적 구분	구체적 삶의 실천
제1규칙: 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	악에서 떠나는 금욕과 절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이웃의 몸과 재산과 명예를 해치는 모든 불의 · 다툼 · 고리대금 · 험담을 그침
제2규칙: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Do all the good you can)*	**자비의 실천** *(Works of Mercy)*	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아보고(마 25장), 성도들의 영혼을 서로 일깨워 줌
제3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라 *(Attend upon all the ordinances of God)*	**경건의 실천** *(Works of Piety)*	공적 예배, 말씀 사역(읽고 듣고 묵상함), 주의 만찬(성찬), 가정 기도와 골방의 은밀한 기도, 금식과 절제

2. 나란히 읽는 말씀 (히브리서 10:24-25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24 Let us consider how to provoke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 25 not forsaking our own assembling together, as the custom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권면을 건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존 웨슬리는 이 말씀 위에서 그의 유명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홀로 있는 종교(Solitary Religion)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Social Religion)이며, 거룩함은 곧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입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말한 '사회적 성결'이란 오늘날의 정치 구호가 아니라, 먼저는 사막의 은둔자처럼 혼자 골방에 숨어 도를 닦는 개인주의 신앙을 거부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죄를 고백하며(약 5:16)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생명 공동체 속의 성결'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에서 데워진 사랑이 세상 속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살리는 '자비의 실천'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혼자 돌아서서 일주일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바람에 금세 마음이 식어 버립니다. 그러나 매주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지난 한 주간 내 영혼은 어떤 유혹과 싸웠는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꾸밈없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벗들이 곁에 있을 때, 넘어졌던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교만해지려던 사람은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실천(기도 · 말씀 · 성찬)'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구제 · 돌봄 · 선행)'이 두 날개처럼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웨슬리가 꿈꾸었던 속회이자 오늘 우리가 세워 가야 할 믿음의 식탁입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웨슬리 신학 열쇠 말

4-1. 카타노오멘 알렐루스 (κατανοῶμεν ἀλλήλους · G2657 + G0240)

24절 '서로 돌아보아(Let us consider one another)'. 동사 '카타노에오'는 스치듯 흘끗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과 영혼의 상태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속회에서 조장과 속원들이 서로의 영혼을 돌보던 시선이 바로 이 '카타노에오'입니다.

4-2. 에이스 파록쉬스몬 아가페스 카이 칼론 에르곤 (εἰς παροξυσμὸν ἀγάπης καὶ καλῶν ἔργων · G3948 + G0026 + G2570 + G2041)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명사 '파록쉬스모스'는 본래 날카롭게 벼리다, 거룩한 자극을 주어 분발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성도가 서로 만나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거룩한 불꽃을 일으켜 주는 사귐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홀로 있는 성도는 넘어지기 쉬우나 함께 묶인 장작은 꺼지지 않습니다 (24절)

신앙은 결코 외로운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진짜 상태를 숨김없이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도로 붙들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성경이 아는 거룩함은 언제나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STEP 02. 경건의 실천(Works of Piety)과 자비의 실천(Works of Mercy)의 두 날개 (25절 상)

기도와 말씀과 성찬이라는 경건의 실천이 없는 자비는 곧 메말라 버리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자비의 실천이 없는 경건은 바리새인의 위선으로 굳어집니다. 웨슬리의 영성은 이 두 날개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 **핵심 메시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무릎은 반드시 거리에서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손으로 이어집니다.

STEP 03.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 (25절 하)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일상의 작은 규칙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손이 닿는 곳에서 작은 선을 행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 **핵심 메시지:** 가장 깊은 영성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 가지 일반규칙을 신실하게 살아 내는 것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6-B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지금 누군가 나에게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체면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진짜 형편을 무엇이라 나누겠습니까?

2) 이번 한 주간 내가 '경건의 실천(기도 · 말씀)'과 함께 이웃을 향해 행할 작은 '자비의 실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6-C 마무리 기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그만이라는 외롭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서로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따뜻한 속회와 사귐의 식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실천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스 웨슬리 찬송 신학〕 노래하는 교리 (Sung Theology) — 「만 입이 내게 있으면」과 「어찌 그럴 수 있나」에 담긴 구속의 감격

〔골로새서 3:16 · 시편 40:3〕 찰스 웨슬리(1707~1788) 6,500곡 찬송시 중 대표 3대 찬송 신학 강해

〔찰스 웨슬리 찬송 신학〕 노래하는 교리 (Sung Theology) · 골로새서 3:16

1. 개관 · 설교로 선포된 복음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노래가 되다

1-A 1738년 오순절, 형보다 사흘 먼저 찾아온 찰스 웨슬리의 회심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기 사흘 전인 **1738년 5월 21일 오순절 주일**, 극심한 늑막염으로 병상에 누워 있던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에게 먼저 성령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이틀 뒤인 5월 23일, 찰스는 자신의 구원을 노래한 첫 찬송시 **「어찌 그럴 수 있나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를 썼고, 그다음 날 밤 형 존 웨슬리가 회심하자 형이 찰스의 방으로 달려와 두 형제가 눈물로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회심 1주년이 되던 1739년 5월 21일, 모라비안 스승 피터 뵐러가 건넸던 말(*"내게 천 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든 혀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라"*)을 떠올리며 쓴 곡이 바로 감리교 찬송가의 영원한 제1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입니다.

1-B 찰스 웨슬리 3대 대표 찬송과 웨슬리 구원론의 연결표

찬송 원제 (우리말 제목)	창작 배경	핵심 가사 원문 & 번역	담긴 웨슬리 신학 교리
And Can It Be *(어찌 그럴 수 있나)*	1738. 05. 23 회심 직후 병상에서 작시	*"My chains fell off, my heart was free, I rose, went forth, and followed Thee."* (내 사슬 풀리고 내 맘 자유 얻어, 일어나 나아가 주를 따랐네)	**선행은총과 칭의 · 거듭남:** 베드로의 감옥에 비친 빛(행 12:7)처럼 잠든 죄인을 깨워 사슬을 끊으시는 구원의 은총
O for a Thousand Tongues *(만 입이 내게 있으면)*	1739. 05. 21 회심 1주년 감사 찬송	*"He breaks the power of canceled sin, He sets the prisoner free."* (사해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네)	**칭의와 성화의 결합:** 죄책을 사하실(canceled sin) 뿐 아니라 죄의 지배하는 권세까지 깨뜨리시는(breaks the power) 현재적 구원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사랑하는 주님 예수 / 하늘의 크신 사랑)*	1747년 출간	*"Take away our bent to sinning… Finish, then, Thy new creation, pure and spotless let us be."* (죄로 기우는 성향을 거두어 가시고… 주의 새 창조를 완성하사 순결하고 흠 없게 하소서)	**전적 성화(그리스도인의 완전):** 마음 깊은 곳의 죄로 기우는 성향(내재하는 죄)까지 씻어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하심을 구하는 기도

2. 나란히 읽는 말씀 (골로새서 3:16 · 개역한글 & WEB 대조)

2-A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번역)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B 영어 성경 대조 (World English Bible)

- 16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 to the Lord.
- 17 Whatever you do, in word or in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

3. 꿈바온 매일말씀 스타일 풀어읽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찬송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여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자 권면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광부들과 직공들 가운데는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요한일서의 깊은 구원 교리를 신학 박사들보다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가슴에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찰스 웨슬리가 평생 지은 육천오백여 편의 찬송시, 곧 '노래하는 교리(Sung Theology)' 덕분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가사 한 줄 한 줄은 성경 구절과 웨슬리 신학의 정수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의 유명한 구절을 들어 보십시오. 'He breaks the power of canceled sin(그분은 이미 용서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단 한 줄에 칭의와 성화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용서된 죄(canceled sin)'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죄책이 탕감된 '칭의'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breaks the power)'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죄의 지배력을 끊어 내시는 '거듭남과 성화'입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외칩니다. '그의 피는 가장 더러운 죄인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피가 나를 위해 효력을 발휘했네(His blood availed for me)!'

또한 「어찌 그럴 수 있나(And Can It Be)」 4절은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혀 사슬에 묶여 자던 베드로의 방에 주의 사자의 빛이 비치고 사슬이 벗겨진 사건을 그대로 선행은총과 회심의 그림으로 노래합니다. '오랫동안 나의 갇힌 영혼은 죄와 밤의 감옥에 묶여 있었으나, 주의 눈길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 내가 깨어났고 감옥에 빛이 가득찼네. 내 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이 자유를 얻어, 내가 일어나 나아가 주를 따랐네!' 머리로만 외우는 교리는 시련 앞에서 쉽게 잊히지만, 눈물과 감사로 부른 찬송의 말씀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의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

4. 본문을 여는 원어 & 찬송 신학 열쇠 말

4-1. 에노이케이토 엔 휘민 플루시오스 (ἐνοικείτω ἐν ὑμῖν πλουσίως · G1774 + G4146)

16절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dwell in you richly)'. 동사 '에노이케오'는 나그네처럼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되어 집 안 구석구석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찬송의 날개를 달고 불려질 때 말씀은 머리를 지나 심령 깊은 곳에 집을 짓고 거하게 됩니다.

4-2. 엔 테 카리티 아돈테스 (ἐν τῇ χάριτι ᾄδοντες · G5485 + G0103)

16절 '마음에 감사함으로(은혜 안에서) 노래하며'.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카리스)에 대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

5. 단락별 깊이 읽기 (STEP 01 ~ STEP 03)

STEP 01. 말씀이 가슴에 뿌리내리게 하는 날개, 찬송 (16절 상)

성경의 진리는 읽고 배울 뿐 아니라 입술로 노래할 때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바른 성경적 교리가 담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룩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 **핵심 메시지:** 찬송은 성도의 입술에 올려진 살아 있는 신학 고백입니다.

STEP 02. 감옥의 사슬을 끊으신 은혜에서 온전한 새 창조까지 (16절 하)

찰스 웨슬리의 찬송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경이('어찌 그럴 수 있나!')에서 시작하여, 우리 안의 죄로 기우는 성향까지 깨끗이 씻어 새 창조를 완성해 달라는 성결의 간구로 나아갑니다.

> **핵심 메시지:** 구속의 은혜를 진실로 노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새 성품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STEP 03. 노래가 삶이 되는 예배 (17절)

입술로 부른 찬송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상의 성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입술의 노래가 손과 발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

6. 오늘의 걸음 · 들고 나가는 말씀과 기도

6-A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16)**

6-B 삶을 비추는 묵상 질문

1) 내 인생의 어두운 밤과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내 영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었던 한 줄의 찬송 가사는 무엇입니까?

2)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불평이나 한숨 대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용히 흥얼거릴 감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6-C 마무리 기도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깊은 감옥에 묶여 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사슬을 끊어 주시고 구원의 새 노래를 입술에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일상의 감사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